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 김성경 · 윤보영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

윤보영 (동국대학교 강사)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9-16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저자	김수경, 김성경, 윤보영
발행인	임강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인도협력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02-6948-9650)
I S B N	978-89-8479-995-0 93340
가격	7,500원

© 통일연구원, 201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요약	9
I. 서론 김수경	17
1. 연구목적	19
2. 기존 연구 검토	25
3. 연구방법 및 구성	30
II. 통일동의 교육과 계층의 분절적 구조 김성경	41
1. 임대주택 단지의 등장과 지역 공간의 재편	43
2. 교육의 신자유주의화	50
3. 역지대(Liminal Space)의 가능성	54
4. 소결	58
III.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윤보영, 김수경	61
1. 통일구의 교육환경과 탈북민의 적응	63
2. 탈북민 학부모의 관계 맺기	79
3. 탈북민의 계층인식과 자녀에 대한 꿈	85
4. 소결	93

IV. 남한주민의 경험 김수경	97
1. ‘학군’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자본	99
2. 남한 학부모의 사회적 관계	109
3. 부동산과 계층인식	120
4. 소결	127
V. 통일초등학교: 갈등과 이해의 공간 김성경	131
1. ‘역지대’로서의 통일초등학교	133
2. 통일전담교육사의 역할	139
3. 통일초등학교 내 탈북민 학생의 경험: 방과후 수업의 풍경	142
4. 학교 밖 탈북민 학생의 교육환경	145
5. 소결	148
VI. 결론 김수경	151
참고문헌	15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7

표 차례

〈표 1-1〉 북한이탈주민 정착수준 지표 중 통합지표 체계	28
〈표 1-2〉 탈북민 사회통합의 영역과 지표 중 통합 영역의 지표	29
〈표 1-3〉 통일초와 서울초에 배정되는 아파트 세대수	33
〈표 1-4〉 통일초와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33
〈표 1-5〉 피면접자 목록	36

그림 차례

〈그림 I-1〉 통일초 인근 지역 개략도	32
〈그림 I-2〉 통일초와 서울초의 전입·전출 인구	34
〈그림 II-1〉 F아파트 진입로(일방통행)	46
〈그림 II-2〉 F아파트 출구(일방통행)	46
〈그림 VI-1〉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및 연령 분포	156

요 약

탈북이 드물었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탈주민은 ‘보호’의 대상이었다. 탈북은 예외적인 사건이었으며 그만큼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정치적 선전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탈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 동화가 아닌, 남한주민이 이들을 수용하고자 함께 노력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여러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하는 일차적 공간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의 한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지역에 위치한 ‘통일초등학교’(가칭)라는 공간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양상을 추적한다. 초등학교는 아동뿐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사소통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의 학업,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을 이유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눈다. 달리 말하면, 학교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통일초가 위치한 통일동(가칭)이 교육과 계층에 따라 어떻게 분절되어 있는지를 탐색한다. 통일동 일대는 원래 저개발 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대대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수만 호의 아파트가 들어선 뒤부터는 중산층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변모했다. 이 지역의 교육열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릴 만큼 치열한데, 이는 중산층의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 지역에 3,000여 가구로 구성된 대단

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통일동은 교육과 계층을 둘러싼 일종의 분절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이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를 통일초에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통일초를 둘러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에 긴장을 유발하는 맥락을 제공한다.

제3장에서는 통일초등학교에서 탈북민 학부모가 경험하는 이 지역의 교육열과 이에 적응하는 전략을 살펴본다. 통일초에 자녀를 보내는 탈북민 학부모들은 한국사회에서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과하다고 느끼며, 특히 교육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었던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현실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학부모들은 남한 학부모를 ‘관찰’하며 남한의 교육문화를 배워가려 노력하는데, 남한 학부모와 적극적인 교류를 맺기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 출신임이 드러날 경우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들은 자녀의 사회적 성공보다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희구하였으며 본인 역시 한국사회에서 계층 상승을 꿈꾸지 않았다. 이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하기보다는 꿈을 갖지 않음으로써 좌절 또한 없는 삶이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들에게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억압이 개인의 힘으로 부술 수 없는 공고한 것으로 느껴지며, 이는 탈북민에게 무력감을 주기도 한다.

제4장에서는 통일초등학교에서 남한 학부모들이 경험하는 탈북민 학부모와의 교류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배제를 다룬다. 이 지역의 남한 학부모들은 대부분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학부모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자녀관리’의 문화를 형성하며, 여기에서 탈북민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남한 학부모들은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탈북민의 모습을 보며 “자녀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고, 탈북민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친하게 지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남한주민이 탈북민을 일부러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끝나고 ‘사교육

의 시간이 찾아오면 남한 아이들과 탈북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남한 아이들은 학원으로, 탈북민 아이들은 학교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교실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한편 탈북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피 현상은 부동산 가격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나는데, 통일초를 배정받는 아파트는 인근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통일초 배정 아파트 주민들은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5장에서는 통일초등학교라는 공간에서 사회경제적 계층과 출신배경이 전혀 다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공존하며 만들어내는 통합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조망한다. 남한주민과 탈북민이 공존하는 통일초등학교 내에서의 관계동학을 살펴보면, 통일초등학교는 사회적 계층과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두 집단이 자녀교육을 매개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제공한다. 그만큼 갈등의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통일초등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탈북민 학부모들을 교육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또한 혁신초 전환 이후 대대적인 시설개비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남한 학부모로부터도 큰 만족을 이끌어냈다. 통일초의 이러한 노력은 상이한 두 집단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잠시나마 서로에 대한 불신을 멈추고 이해하며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은, 통일초가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자칫 탈북민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의 역할을 제시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다수는 학부모로서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남한 사회를 경험하며, 이 속에서 발생하는 분리와 배제에 노출된다. 따라서 학교가 이들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거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일초의 사례를 통해 학교라는 공간에서 잠시나마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에 대한 경계를 멈추

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사회통합, 지역사회, 탈북민 밀집 거주지역

Abstract

Value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North Koreans' Integration into a Local Community

Sookyung Kim et al.

Until the early 1990s, when there were only a few North Koreans who defected to South Korea, defectors were kept under protection. Since defections were few and far between, they were used as a tool of political propaganda to prove the superiority of the South Korean regime. However, with an influx of North Koreans into South Korea since the late 1990s, issues involving settlement and adaptation of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have emerged in earnest. Recently, full-fledged discussions have begun on how South Koreans can work together to integrate North Korean defectors into society, rather than North Koreans assimilating unilaterally.

This study looks into the role of a local community in the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a primary space where North Koreans face difficulties in the settlement process and where such difficulties must be addressed.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traces the integr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to a community through Tong-il Elementary School,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a district of Seoul with a concent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Elementary schools are places where various actors as well as childre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Parents and teachers exchange information and share ideas about their children's school work, school life and peer relations. In other words, schools have the effect of forcing community member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around the nexus of their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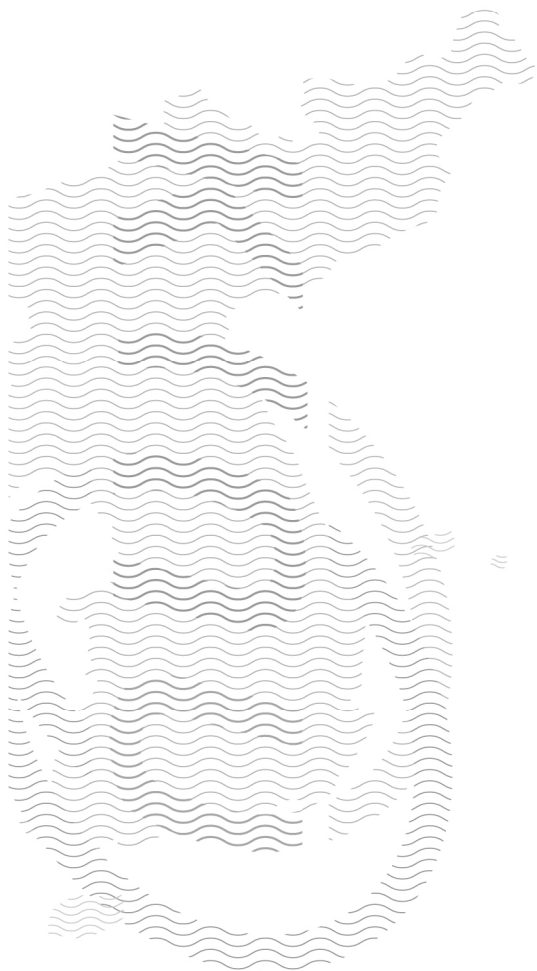
This study is organized into four sections. The second section explores how the local district, where Tong-il Elementary School is located, has been segmented according to education and class. This chapter looks in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is region's transformation into a prestigious school district and hub of private education, and examines the context of how such spatiality has caused tensions betwee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this region. The third section examines the North Korean parents' experiences of the South Korean zeal for children's education through this elementary school and their strategies to adapt to this environment. The fourth section studies South Korean parents' interactions with North Korean parents at this elementary school and how the latter are misunderstood and excluded in the process. Finally, the fifth section studies both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ntegration by looking at how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who have come from

completely different socio-economic classes and backgrounds, co-exist in Tong-il Elementary school.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s, Value adaptation, Social integration, Local community, Area with concent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 서론

김수경 (통일연구원)



1. 연구목적

1990년대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를 기점으로 탈북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래 20년 가까이 탈북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정세에 따라 부침이 있긴 했지만 2000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꾸준히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¹⁾ 탈북의 역사가 길어진 만큼 이들의 정착 양상도 다변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정착의 성패가 달려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이들이 얼마나 차별이나 불평등을 겪지 않고 남한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살아가는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9년 말 현재 3만 3,523명이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0.06% 정도에 해당하는 적은 숫자지만 이들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상징성 때문에 이들의 성공적 정착 여부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흔히 ‘통일의 마중물’, ‘통일의 역군’이라 불리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점치는 일종의 시금석으로 간주되곤 한다. 정부의 지원도 초기에는 정착보조금이나 주거 지원 같은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의 경제활동 실태에 대한 것이 많았다. 이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결정 요인, 취업전략, 직장 적응, 소비생활 등을 조사·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²⁾ 북

1) 정부는 북한을 이탈해 국내로 들어온 북한주민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 유시은, “폐닐모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결정요인,” 『통일연구』, 제16권 제1호 (2012), pp. 39~69; 천혜정·서여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소비행위의 의미,”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2014), pp. 109~135; 서창록, “북

한이탈주민들은 탈북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편입되면서 경제적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사회 적응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일차적인 관심이 경제문제에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비해 경제 외(外)적인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통합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본격화하는 추세이다. 이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치관, 정체성, 생활만족도 등을 탐색하고 있는데,³⁾ 고용률이나 기초생활수급비율과 같은 경제활동 지표와 달리 비경제적 분야의 적응은 명백한 수치화가 어렵기 때문에 논의의 추상수준이 높은 편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외적 영역에서의 적응을 ‘가치적응’이라 통칭하고, 지역사회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양상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이상적인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과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온전히 흡수되어 탈북민으로서의 표식을 잃어버리는 동화(assimilation)를 이상적 형태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탐색: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2권 제1호 (2010), pp. 145~174.

3) 김수암 외,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1~356; 정권·최창용, “탈북주민의 가치관, 적응도 및 삶의 만족도,” 『KDI북한경제리뷰』, 2018년 4월호 (2018), pp. 41~63; 유시은 외,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남한 입국 3년 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연구』, 제16권 제2호 (2012), pp. 67~120; 장민수·이재철, “북한이탈주민 젊은 세대는 행복인가? 삶의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2호 (2016), pp. 277~301;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한국학연구』, 제41집 (2012), pp. 37~61.

4) ‘가치’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경제 외의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적응의 어려움을 탐색하는 것에 있으므로 비경제적 영역을 통칭하는 단어로 ‘가치’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다문화 시대에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 동화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통합(integra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합이란 상호이해와 인정에 기초해야 하며 일방적인 ‘흡수’가 아니라 ‘상호 변화와 침투’의 길고 복잡한 과정을 요구한다.⁵⁾

사회통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가장 핵심은 구성원 간의 적극적 의사소통 및 교류라고 할 수 있다.⁶⁾ 이질적인 개인은 소통을 통해 상충하는 욕구와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타협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의 행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은 영원히 진화하는 과정에 있을 뿐 궁극의 이상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 없이 생성과 재생산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적 형성과정’이기 때문이다.⁷⁾

사회통합을 다룬 실무적 차원의 보고서들 역시 사회통합을 정의하는 데 있어 이러한 상호주의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통합(integration)을 “이주 수용국과 이주민 간의 상호 적응 과정으로,

5) 전태국, “사회통합을 지향한 한국통일의 개념전략,” 『한국사회학』, 제41집 제6호 (2007), p. 206.

6) 하버마스는 사회를 ‘생활세계(Lebenswelt)’와 ‘체계(System)’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생활세계의 통합을 사회통합으로, 체계의 통합을 체계통합으로 간주하였다. ‘생활세계’는 가족, 학교, 교회와 같이 의사소통적으로 중재되는 네트워크인 반면, ‘체계’는 시장경제나 관료제적 국가와 같이 탈언어화된 매개가 사회구성원을 기능적으로 결합시킨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장춘익 옮김, 『의사소통행위이론 1·2』 (서울: 나남출판사, 2006).

7) 이재열 외,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제21집 제2호 (2014), p. 123.

이주민이 수용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에 편입되는(incorporated) 것”으로 정의한다.⁸⁾ 유엔은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채택한 「코펜하겐사회개발선언」을 통해 사회통합의 개념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였는데, 회원국은 사회통합을 위해 “모든 인권에 대한 보호 및 추진, 비차별, 관용, 다양성에 대한 존중, 기회의 평등, 연대, 안보, 그리고 취약계층 및 빈곤층 모두의 사회 참여에 기반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⁹⁾ 결국 사회통합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평하게 사회 각 분야에 차별 없이 참여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실무적 정의를 고려하면 사회통합 연구는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양상을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많은 경우 이들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적응한 ‘상태’에 놓여있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교육, 주거, 건강과 같은 지표를 통해 탈북민 정착의 ‘과정’보다 ‘결과’를 들여다보는 연구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적응 상황을 가늠하는 것은 이들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이 높다고 해서 이들의 적응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

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ntegration and Social Cohesion: Key Elements for Reaping the Benefits of Migration,” Global Compact Thematic Paper (2017), p. 9.

9) UN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Copenhagen Declaration on Social Development,” UN Doc. A/CONF.166/9 (1995), Commitment 4.

는 까닭은, 고용 이후 직장 내 왕따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 등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남한주민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하기로 한다. 과거 사회통합 논의는 ‘민족’ 또는 ‘국가’와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통합에 주목했다. 따라서 남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 민족의식,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측정하는 척도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그보다 훨씬 미시적 수준에서 발생한다. 가령,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은행에 돈을 맡기고 찾는 등의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일차적 공간은 지역사회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사회통합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¹⁰⁾

사회통합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부각된 것은 주로 이주민 연구자에 의해서다. 초기의 이주민 연구는 이주민을 국적별, 입국 목적별로 분류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배제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그에 대한 제안을 담은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이외에도 재중동포, 이주노동자의 자녀 등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정주(定住)의 양상을 띠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점차 ‘생활인’으로서의 이주민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한승미 외는 기존의 다문화 정책이 귀화자 및 결혼이민자 등 한국 국적 취득(예정)자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외국인을 국민/비국민으로 나누어 정책대상에 포함/배제시키지 말고 ‘주민’으로 개념화하여 지방자

10) 설진배·송은희,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향: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수요분석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6권 제5호 (2015), pp. 193~216; 김창근,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 제고 방안: 지역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121호 (2018), pp. 197~225.

치단체의 적극적 정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¹¹⁾ 정기선 외는 다문화가족과 여타 외국인을 분리하는 중앙정부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비판하면서, 생활에의 밀착도가 높은 시·군·구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기획하고 구축하여 외국인주민 통합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¹²⁾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통합되는지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회통합’에서 ‘생활밀착형’으로 이동한 것도 북한이탈주민을 ‘국민’에서 ‘주민’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변동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¹³⁾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초등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조망해보고자 한다.¹⁴⁾ 초등학교는 아동 뿐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사소통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의 학업,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을 이유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학군’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는 행위자로서 학교와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받는다. 달리 말하면, 학교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11) 한승미 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서울: 행정안전부, 2010), pp. 1~207.

12) 정기선 외,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연구』(서울: 행정안전부, 2012), pp. 1~159.

13)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14)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의 선(先)주민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 국민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구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또는 탈북민)’과 ‘남한주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문맥에 따라 ‘한국사회’와 ‘남한사회’라는 단어를 혼용하였으며, 특히 북한과의 대비를 이루는 경우에는 ‘남한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2. 기존 연구 검토

탈북이 드물었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탈주민은 보호의 대상이었다. 이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은 영웅으로 간주되었다. 탈북은 예외적인 사건이었으며 그만큼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정치적 선전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탈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학계로 대표되는 전문가 집단,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는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쏟아냈다.¹⁵⁾

탈북민의 대량 입국은 새로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관련 연구는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총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탈북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탈북민 내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징도 다변화되었다. 제3국 체류경험, 연령, 탈북동기, 단신탈북, 가족탈북 등 다양한 배경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유입되면서 이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도 각론 수준으로 세분화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문화적 적응, 심리적 적응, 사회적 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와 이들의 적응을 돕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 동화를 강제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들을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의 수용성 또한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5)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세명, 2001), pp. 1~430;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1~379; 조정아·임순희·정진경,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6), pp. 1~229; 윤인진,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과주: 집문당, 2009), pp. 1~320.

다. 여현철은 ‘적응’의 개념을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객관적 관점에서서의 적응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주관적 관점에서의 적응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김화순·최대석은 지난 10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라는 도구적 가치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사람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초기의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가가 정착 정책의 전부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¹⁷⁾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초기 논의는 독일의 사례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서독이 동독주민에 대해 일방적인 동화를 강요한 나머지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한국사회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회통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전성우는 인간을 ‘경제적 존재’로 보는 서독의 가치관이 동독주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면서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보는 동독의 가치관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¹⁸⁾ 독일의 경우 통일은 서로를 학습하는 과정이 아닌, 한쪽(동독주민)의 일방적인 변화를 강요하는 과정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고상두는 사회통합을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의 두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고, 독일의 경우 체제통합과 가치통합 모두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통일 이후 한국사회는 북한주민에게 생산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이등시민’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야 하며, 남북한 주민 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¹⁹⁾ 허준영은 서독이 동화의 관점에서 동독주민의

16) 여현철,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40대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18권 제3호 (2015), pp. 325~359.

17) 김화순·최대석,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2011), pp. 37~73.

18) 전성우, “통일독일에서의 내적 통일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제39집 (2000), pp. 5~29.

일방적인 적응을 강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별, 편견, 선입견이 조장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통합정책을 펼 것을 제안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 역시 총론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연구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탈북민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 지표를 개발 및 분석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신효숙 외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수준을 ‘기회’, ‘자립’, ‘통합’의 영역으로 나누고 12개의 하위지수와 53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²¹⁾ 그 중에서도 본 연구가 주목하는 ‘통합’의 영역의 경우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다.

19)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 (2010), pp. 269~288.

20) 허준영,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2012), pp. 271~300.

21) 신효숙 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표·지수 모형 및 측정도구 개발』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6), pp. 71~73.

〈표 1-1〉 북한이탈주민 정착수준 지표 중 통합지표 체계

종합지수	영역지수	하위지수	지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수	통합	자유민주주의 시민정신	공동체소속감
			국가정체성 및 민주주의 의식
			시민덕목
			정치경제상황 만족도 및 기대감
		사회적 참여	개인의 정치 효능감
			사회적 참여 수준
			문화 및 여가 참여 수준
			미디어별 접촉 수준
		사회적 자본/신뢰	사회·정치 참여 수준
			갈등 수준
			사회인식 수준
		사회적 수용	사회적 안전 수준
			신뢰 수준
			보편복지에 대한 관용 수준
			다양성의 인정 수준
			차별 경험
	소수자 대상 포용성 수준		

출처: 신호숙 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표 · 지수 모형 및 측정도구 개발』, p. 73 〈표 Ⅲ-4〉에서 부분적으로 발췌

신호숙 외는 통합을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체제와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원활히 적응하고, 타 사회구성원들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이룬 상태”로 정의한다. 특히 통합의 핵심가치로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선주민의 수용성을 주목한다.

윤인진의 연구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에이거와 스트랭(Aiger and Strang)의 ‘이주민 통합 모델’(migrant integration model)을 발전시켜 심리·문화적 차원의 지

표들을 추가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지역사회 소속감,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일반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의 전통 문화와 정체성의 인정 등을 탈북민 사회통합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였다.²²⁾ 윤인진의 모델 가운데 본 연구가 주목하는 통합 영역의 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 1-2〉 탈북민 사회통합의 영역과 지표 중 통합 영역의 지표

상위영역	하위영역		지표
표식과 수단	체계 통합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불안전취업률, 고용 안정성, 소득, 빈곤율,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비율, 생활안정 수준
		주거	주거 소유율, 주거 형태,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 안정성
		교육	초·중·고 이수율, 학령기전 교육참여 수준, 대학입학 현황, 학교 만족도, 사교육참여율
	가치 통합	보건	유병율, 병원 치료여부, 이용 의료기관 형태, 의료 충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건강행위, 주관적 건강상태
		소속감	지역사회 소속감, 국민 소속감, 이민 및 재입북 의사, 일반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신뢰감	동등하고 역량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받는 정도
	다문화 수용성	탈북민의 전통 문화와 정체성이 인정받는 정도	

출처: 윤인진,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p. 72 〈표 1〉에서 부분 발췌

본 연구가 초점을 두는 지점 역시 이러한 지표들이 주목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문화적 측면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들과 어떻게 교류하는가? △북한

22) 윤인진,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제6권 제1호 (2019), pp. 61~92.

이탈주민은 북한 출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가? △남한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떻게 교류하는가? △북한이탈주민은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는가?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수용하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들을 지역사회,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라는 사회적 공간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된다. 첫 번째, 사회통합의 상호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남한주민들의 시선도 함께 들여다본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통합을 연구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변화와 적응만을 다룬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을 동시에 인터뷰하고 그들의 상호작용, 서로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소속감 등을 탐색한다. 두 번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보다는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한국사회에 통합되었는가에 대해 추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두 집단이 마주치고 인식하고 교류하는 그 양상에 더 초점을 둔다.

3. 연구방법 및 구성

가. 사례 선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과 교류하고 가치관의 통합을 이뤄가는 여러 지역사회 공간 중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현장(field)을 중심으로 한 연구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경향성을 찾아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현장을 다룬 일부 연구들도 교회

나 직장 등 거주 지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거나 없는 현장에서의 교류에 대한 것이 많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 지역 사회의 특색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거주 지역을 근거로 선정되는 초등학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초등학교는 교육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둘러싼 지역 행위자들의 교류와 이에 따른 의견 형성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통일구 통일동에 위치한 통일초등학교(이하 통일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²³⁾ 2018년 5월 기준, 통일초의 전교생은 304명이며 이 가운데 46명(15.1%)이 탈북민 가정의 자녀들이다. 탈북민 자녀들은 대부분 한국 또는 제3국(주로 중국)에서 출생했으며, 북한 출생은 소수에 불과하다.²⁴⁾ 통일초 인근에는 약 3,000가구로 구성된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통일초에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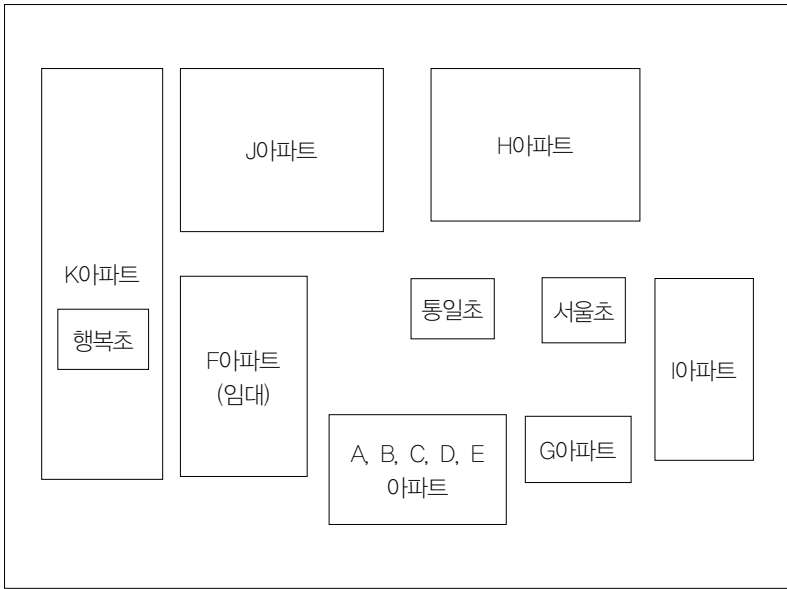
통일동 일대는 원래 판자촌이 즐비한 저개발 지역이었으나 1983년 136만 평 규모의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아파트촌으로 변모한 곳이다. 이 지역은 교육열이 높고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타 지역에서 전입해오는 경우가 많다. 덕분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 형성되어 있다.²⁵⁾ 특히 이 지역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거주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교적 균질하다고 할 수 있다.

23) 익명성 보장을 위해 행정구역과 초등학교 이름은 실제 이름이 아닌 가칭으로 처리하였다.

24) 구체적인 통계치는 면접대상을 특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하지 않기로 한다.

25) 이 지역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부동산 조회 사이트 <land.naver.com>와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언급을 종합하였다.

〈그림 1-1〉 통일초 인근 지역 개략도



통일초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50m 떨어진 지점에는 서울초등학교(가칭)가 존재한다(〈그림 1-1〉 참고). 통일초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상 통일동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초의 정원은 2018년 5월 기준 1,007명으로 통일초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서울초에는 G, H, I 아파트에 사는 아동들이 배정되는데 세 아파트의 세대수를 합치면 4,335세대이다(〈표 1-3〉 참고). 이는 통일초에 배정되는 지역의 아파트의 세대수보다 900세대 이상 적은 숫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3배 이상 많다는 것은 지역주민 사이에서 서울초에 대한 선호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표 1-3〉 통일초와 서울초에 배정되는 아파트 세대수²⁶⁾

학교	배정 아파트	세대수	총 세대 수
통일초 (전교생 304명)	A	378	5,255
	B	1,140	
	C	142	
	D	241	
	E	356	
	F (임대)	2,998	
서울초 (전교생 1,007명)	G	353	4,335
	H	2,280	
	I	1,702	
행복초 (전교생 892명)	J	2,280	3,875
	K	1,595	

〈표 1-4〉 통일초와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통일초		서울초		행복초	
	전체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전체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전체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2015년	307	18.1	964	26.8	930	23.8
2016년	314	16.5	964	26.1	888	22.8
2017년	304	16.0	1,007	25.2	892	22.9

출처: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검색일: 2019.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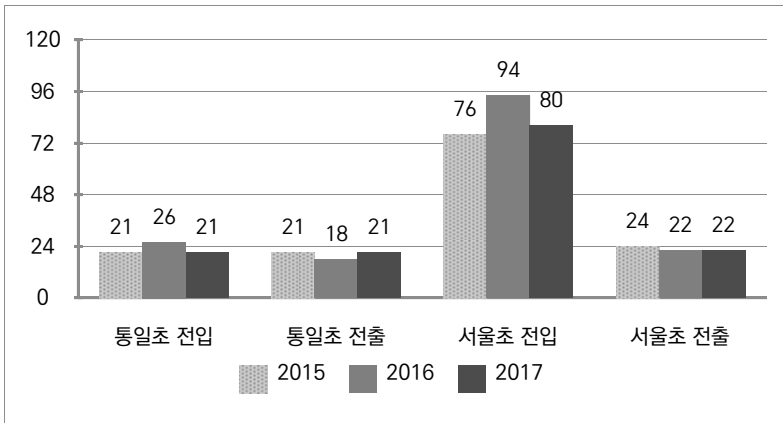
실제로 서울초는 통일초에 비해 전입이 전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그림 1-2〉 참조). 그만큼 학군과 학원가 등 이 지역의 자녀 교육 인프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선호

26) 해당 지역에는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주거형태(단독주택, 빌라 등)도 존재하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통일동의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97.9%를 차지하므로 세대수 계산 시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세대수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land.naver.com〉를 참고하였다.

차이는 아파트 가격에서 드러난다. 서울초에 배정받는 아파트와 통일초에 배정받는 아파트는 30평대를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매매가의 차이가 난다.

〈그림 1-2〉 통일초와 서울초의 전입·전출 인구

(단위: 명)



출처: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검색일: 2019.9.15).

이는 주거 자체가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지리학이나 도시학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동네효과 (neighborhood effect)’에 주목한다.²⁷⁾ 빈곤이 특정 공간에 집중됨으로써 그 공간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지배하는 동네효과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사례를 통해 극적으로 드러난다. 유

27) 광현근,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동네효과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4호 (2008), pp. 203~224; 이종수, “공동체의 형성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동네효과(community effect)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0권 제2호 (2018), pp. 201~219; Ray Forrest and Ade Kearns,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the Neighbourhood,” *Urban Studies*, vol. 38, no. 12 (2001), pp. 2125~2143.

현숙·곽현근은 사회적 불평등이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야기하는 사회적 낙인을 분석하였다.²⁸⁾ 북한이탈주민 역시 임대아파트라는 공간이 야기하는 ‘동네효과’의 부정적 영향권 안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통일초에 자녀를 보내는 북한이탈주민 학부모, 남한주민 학부모, 교사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보원(informant)을 통해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통일전담교육사를 소개받았고, 그를 통해 학부모를 소개받은 뒤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실시하였다.²⁹⁾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신분 노출의 불안을 이유로, 남한주민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해 발언하기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피면접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급적 다양한 집단을 골고루 심층면접의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다.

한 가지 밝혀둘 것은, 본 연구는 탈북민 학생과 남한 학생을 직접 인터뷰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인지발달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성숙한 판단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초등학생을 직접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탈북민 자녀의 학교생활 그 자체보다는, 초등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성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교류양상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동을 직접 면접하지는 않았다.

다만, 탈북학생과 남한 학생의 학교 내 교류 양상을 탐색하기 위

28) 유현숙·곽현근,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권 가을호 (2007), pp. 245~272.

29) 눈덩이표집을 통한 피면접자 모집은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연구주체의 특성상 피면접자 모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가장 현실적인 표집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해 이들이 참여하는 방과후 수업을 참관하였다. 또한 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통일전담교육사를 면접하여 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구 지역에서 탈북민에 대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와, (탈북민 밀집 거주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초등학교 교사 등도 면접하였다. 피면접자의 특징은 <표 I-5>와 같다.

<표 I-5> 피면접자 목록

사례ID	면접대상	나이	성별	특징
사례 1	탈북민 학부모	30	여	- 2015년 탈북, 2016년 남한 입국 - 아들이 통일초 저학년에 재학 중
사례 2	탈북민 학부모	32	여	- 2006년 탈북, 2016년 남한 입국 - 중국에서 10년간 거주, 중국인 사이에서 두 자녀를 출산 - 딸과 아들이 통일초 고학년과 저학년에 재학 중
사례 3	탈북민 학부모	35	여	- 2008년 탈북, 2012년 남한 입국 - 중국에서 조선족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 - 아들이 통일초 고학년에 재학 중
사례 4	탈북민 학부모	54	여	- 2005년 탈북, 2012년 남한 입국 - 아들이 통일초 고학년에 재학 중
사례 5	탈북민 학부모	55	여	- 2005년 탈북, 2012년 남한 입국 - 손자가 통일초 고학년에 재학 중
사례 6	탈북민 학부모	36	여	- 1998년 탈북, 2012년 남한 입국 - 딸이 통일초 고학년에 재학 중
사례 7	탈북민 학부모	47	여	- 1997년 탈북, 2004년 남한 입국 - 아들이 통일초 고학년에 재학 중
사례 8	탈북민 학부모	41	여	- 1997년 탈북, 2006년 남한 입국 - 두 아들이 통일초 졸업 및 고학년에 재학 중

사례ID	면접대상	나이	성별	특징
사례 9	탈북민 학부모	49	여	- 1997년 탈북, 2018년 남한 입국 - 아들이 통일초 저학년에 재학 중
사례 10	탈북민 학부모	47	여	- 2007년 탈북, 2014년 남한 입국 - 아들이 통일초 저학년에 재학 중
사례 11	남한 학부모	39	여	- 두 아들이 통일초 고학년과 저학년에 재학 중 - 통일동 거주 7년
사례 12	남한 학부모	54	남	- 아들이 통일초 고학년에 재학 중 - 통일동 거주 20년
사례 13	남한 학부모	44	여	- 딸과 아들이 통일초 졸업 및 저학년 재학 중 - 통일동 거주 5년
사례 14	남한 학부모	41	남	- 딸과 아들이 통일초 고학년과 저학년에 재학 중 - 통일동 거주 10년
사례 15	남한 학부모	41	여	- 아들이 통일초 저학년에 재학 중 - 통일동 거주 6년
사례 16	통일전담 교육사	53	여	- 현재 통일초 근무 - 2010년 남한 입국
사례 17	통일전담 교육사	54	여	- 00초 근무 - 2000년 남한 입국
사례 18	전 통일전담 교육사	38	남	- 2015~2017년 통일초에서 근무 - 2010년 남한 입국
사례 19	통일전담 교육사	40	여	- 00초 근무 - 2013년 남한 입국
사례 20	복지사	58	여	- 통일구에서 탈북민 대상 복지를 담당
사례 21	복지사	52	여	- 통일구에서 탈북민 대상 복지를 담당
사례 22	초등학교 교사	41	여	- 00초에 근무하면서 탈북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 초등학교 내 탈북학생의 적응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이와 관련된 교사 모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면접은 2019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구자의 연구실 또는 피면접자가 원하는 공간(예: 커피숍, 가정방문)에서 이루어졌다. 면접 방식은 대략적인 질문의 주제를 마련하되 구체적인 질문은 피면접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묻는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다.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제2장에서는 통일동을 가로지르는 교육과 계층의 분절적 구획을 탐색한다. 통일동이 중산층의 밀집 주거지역으로 진화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영향력이 어떻게 이 지역을 명문학군이냐 사교육 밀집지역으로 변모시켰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 특성이 남한주민과 탈북민 간에 긴장을 유발하면서도 한편으론 초등학교라는, 일종의 강제된 통합의 공간에서, 두 집단에게 교류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맥락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통일초등학교에서 탈북민 학부모의 경험을 다룬다. 탈북민이 경험하는 통일동 학군의 교육열과 그 속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이 자녀교육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남한 학부모와의 관계, 다른 탈북민 학부모와의 관계, 본인의 계층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해 소망하는 꿈을 살펴봄으로써 교육열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의 중산층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에 적응해 가는지를 탐색한다.

제4장에서는 통일초등학교에서 남한 학부모의 경험을 다룬다. 교육열이 지배하는 공간인 통일동에서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남한 학부모들은 통일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탈북민이라는 낯선 집단과 마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교육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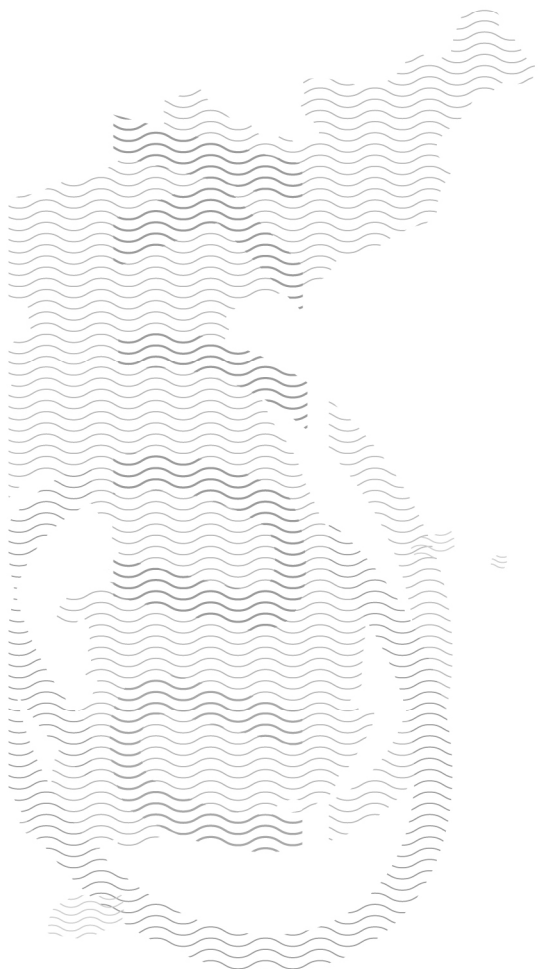
도 다른 두 집단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오해와 배제를 남한 학부모의 시선에서 탐색한다.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격차가 두 집단을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는 현상에 주목한다.

제5장에서는 이질적인 두 집단과 문화가 통일초등학교라는 공간에 공존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조망한다. 통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통일동 일대는 사회경제적 계층과 출신 배경이 전혀 다른 남한주민과 탈북민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어떻게 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탈북민의 지역사회통합에 학교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조망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발견을 요약하고 정책제안을 시도한다. 특히 탈북민의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과 무관할 수 없으며, 이들의 학부모 역할이 고려된 지역사회통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II. 통일동의 교육과 계층의 분절적 구조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1. 임대주택 단지의 등장과 지역 공간의 재편

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 소개된 것은 1989년이다. 1980년대 후반 정부는 도시미화 및 주거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 200만 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1989년 영구임대주택 19만 호가 처음으로 공급되었고 2014년 말 현재까지 총 118만 호가 공급되었다. 2015년 8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편되면서 기존의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규가 재정비되었고, 그 유형 또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 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다양화되었다.³⁰⁾

임대주택은 “주택의 소유자가 일정한 경제적 급부를 전제로 자기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주택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 틀 속에서 공급되어 유통되는 주택”을 의미한다.³¹⁾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성을 목적으로 임대한 주택을 의미하며, 주로 사회적 약자 혹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1989년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이래 시기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계속적으로 진화해 왔다. 그 이름과 유형이 세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급량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문제는 여전히 한국사회를 괴롭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했던 정부로서는 공공임대주택 형태의 아파트를 건설·보급하는 것에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 정비의 효과

30) 김근용 외,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서울: 국토연구원, 2015), p. 4.

31) 위의 책, p. 15.

는 물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에는 규격화된 아파트만한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브랜드와 평수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서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계층 간의 공간적 격리와 낙인화 등이 더욱 가중되는 현상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³²⁾

부를 축적한 계층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아파트로 구성된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에 주거하게 되었다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이라는 구획으로 나뉜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주거 양상을 띠게 되었다.³³⁾ 경제적 상류층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다양한 출입 시스템과 보안 강화’라는 명목으로 외부와 자신들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시 공간의 배제와 구분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소셜믹스(social mix)’로 불리는 주거 공간의 혼합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추진된 계층 간 혼합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어냈다.

하나의 예로 ‘주공아파트’가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자 한국주택공사는 2006년 주공아파트의 브랜드를 ‘휴먼시아’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다시금 주민들 사이에서 휴먼시아에 사는 주민을 ‘휴거(휴먼시아 거지)’라고 부르는 일이 생겨나면서, ‘휴먼시아’라는 브랜드는 5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³⁴⁾ 지금은 LH라는 아파트

32) 한국사회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떻게 경제적 부를 재생산하고, 주거 공간의 의미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논의는 박철수, 『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서울: 마티, 2013);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서울: 이숲, 2009) 등을 참조.

33) 정현목,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제13호 제1권 (2012), pp. 37~56.

브랜드로 통일되어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계층에 따른 공간적 구획이 아파트 단지에서도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소셜믹스 정책으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일반분양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동선을 분리하거나, 임대 동과 일반 동 사이에 장벽 혹은 문을 만들어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³⁵⁾ 설령 건설 단계에서는 특별한 구분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후 주민들에 의해 건물의 외벽 색을 바꾸거나 조경을 달리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일반분양 세대와 임대세대를 구분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다. 재건축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10~15%의 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강제된 규정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배제와 차별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의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통일 초 인근 지역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F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기업인 SH공사가 시공하여 임대한 것으로 1995년에 완공되었고, 전용면적 33㎡과 39㎡의 소형주택 총 2,998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파트는 혼합형이 아닌 전 세대가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지이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변 아파트 단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정도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임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가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34) 강준만은 한국사회의 민낯을 고발한 『바벨탑 공화국: 욕망이 들끓는 한국 사회의 민낯』(서울: 인물과사상, 2019)에서 임대주택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김윤영의 단편소설 “철가방 추적 작전”(『한국문학』, 2000년 겨울호 게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한국사회가 경제적 부를 추구하며, 자신들보다 열악한 자원을 소유한 이들과의 구별 짓기의 욕망이 있음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강준만, 위의 책 제5장 참조.

35) “장벽 세우고, 비상계단 막고... 임대주택 차별 기막힙니다.” 『조선일보』, 2019.8.26., <reali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5/2019082501534.html> (검색일: 2019.9.20.).

두 집단 사이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다양한 공간적 분리의 기제가 작동하면서 임대 아파트 단지를 구별한다. 일단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미비하고, 주변 아파트와는 도보로만 통행이 가능한 좁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통일초등학교를 차로 접근하려면 F임대아파트를 관통하는 길이 유일하다. 혼합형 아파트 단지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차단이 F임대아파트와 그 안에 존재하는 통일초등학교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그래서 F임대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유리된 하나의 ‘섬’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³⁶⁾

〈그림 II-1〉 F아파트 진입로
(일방통행)



출처: 필자 촬영.

〈그림 II-2〉 F아파트 출구
(일방통행)



출처: 필자 촬영.

위의 〈그림 II-1〉과 〈그림 II-2〉이 보여주듯 F아파트 단지로의 입구는 좁은 일방통행 도로이다. 이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바로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고, 역시 통일초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가 육교의 형태로 존재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공간의 출구 또한 반대편의 일방

36) 연구자가 통일초등학교의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만난 탈북학생 대상 책 읽기 프로그램 강사 A씨는 인터뷰에서 “통일초등학교와 여기 아파트는 하나의 섬처럼 있는 거지요”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통행 도로가 유일하다. 그만큼 F아파트 단지과 통일초등학교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F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3,000여 세대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지금보다는 넓고 양방향의 차도와 통행로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이 지역은 마치 섬처럼 주변지역과 구별되어 제한된 접근만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카스텔스(Castells)나 하비(Harvey)의 도시연구가 증명하듯 자본의 이윤추구와 지배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간이 구획되고 실천된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 서울의 도시 공간을 이해하는 데 더 적절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³⁷⁾ 더 나아가서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거주자의 사회적 신분이 구성되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계급은 단순히 생산이나 소비와 같은 경제적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 영역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³⁸⁾

통일초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시기에 개발되었다. 당시 정부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게임'을 앞두고 서울의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를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 주택지구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었다. 군부독재시절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개발 사업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주고 외곽으로 사실상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지역 개발은 1차로 1,804세대, 2차로 7,898세대, 3차로 15,298세대가 분양되어 1989년 10월에

37) Manuel Castells, *The Urban Question* (London: Edward Arnold, 1977); David Harvey, "The Urban Proces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in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eds. Michale Dear and Allen J. Scott (Oxford: Methunew, 1981).

38) 주택 계급(housing class)은 거주민의 주택 소유 여부, 위치, 크기, 유형, 가격 등에 따라 계급이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중산층과 주택 계급에 대한 논의는 장세훈을 참고할 것. 장세훈, "주택소유의 관점에 입각한 중산층의 재해석," 『경제와 사회』, 제74호 (2007), pp. 199~226.

모든 입주를 마쳤다. 이 지역의 중심에는 상업지구가 들어섰고 특히 1차 개발지역과 2차 개발지역 사이에 전문 학원가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와 학군, 사설 교육학원 등이 들어선 곳으로 탈바꿈되었다.³⁹⁾

풍부한 사설학원과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는 이 지역은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에게 인기 높은 주거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도 몇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이 지역 끝자락에 위치한 지하철 차량기지였다. 1992년에 개소한 이곳은 총 23만 4,286㎡에 이르는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차량기지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에게는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다.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는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기지 공간의 일부를 활용해 임대아파트와 학교를 건설하였다.⁴⁰⁾ 그러나 차고지는 근본적으로 주거를 위해 구획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마련된 임대주택단지에는 인근 아파트와 매우 구분되고 도드라지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임대아파트 단지를 기점으로 위쪽(북서쪽)에는 앞서 언급한 1980년대에 개발된 대단지 아파트 지구가 들어서 있으며 네모반듯한 대규모의 토지 위에 수만 가구의 아파트가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있다. 반면 아래쪽(남동쪽)은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부터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다. 위쪽과 달리 국가 주도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 규모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으며 땅의 모양도 제각각이다.

아래쪽 지역은 최근 들어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통일동으로 유

39)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서울: 한울, 2003) 참조.

40) 이규리·김영훈, “철도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을 활용한 주거시설에 관한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2호 (2017), pp. 86~87.

입된 인구가 많이 분포한 곳이기도 하다. 위쪽 지역에 형성된 아파트 지구가 통일동 학군의 중심부라면, 아래쪽 지역은 다소 주변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은 학군 및 사교육의 중심부를 향한 열망이 더 강하다고도 볼 수 있다. 후발 주자로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은 학군 중심부에 사는 중산층과 임대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 사이에 존재하면서, 후자와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도 전자와 유사한 생활패턴을 추종하는 경향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F임대아파트 단지에 북한이탈주민이 유입된 것은 2010년 전후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복지사에 따르면 F아파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는 약 500세대로, 전체 가구의 약 1/6에 이르는 숫자이다.⁴¹⁾ 정확하게 몇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는 구할 수 없지만 통일구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약 1,000여 명 가량인 것을 볼 때 F임대아파트가 탈북민의 밀집 주거지역임은 분명해 보인다.⁴²⁾

F임대아파트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충분히 가시적일만큼 많아서 입주민들 사이에서 구별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F단지에 거주하는 남한 거주민들은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대해 경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령 북한이탈주민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적인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한다.⁴³⁾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남한주민과 탈북민 간의 갈등은 단지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탈북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남한주민들의 부정

41) <사례 20>과의 면접.

42)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시군구별 실태보고서: 10대 주요 거주지역편』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7), p. 3.

43) <사례 20>과의 면접.

적 인식이나 갈등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⁴⁴⁾ 소수의 이주민은 원주민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집단화된 이주민은 일상생활에서 가시화됨으로써 원주민과의 다양한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원주민은 이주민과의 차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여 저항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F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1/6 가량의 세대가 탈북민으로 채워지면서 기존의 남한 거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이 본격화되기도 한다.

2. 교육의 신자유주의화

교육을 둘러싸고 한국사회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교육에 시장의 가치가 적극적으로 개입된 현 상황을 비판하며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어느 쪽 입장에 선다고 해도 현상적 수준에서 한국의 교육은 너무나도 경쟁적이며, 이 싸움에서 학부모도 학생도 다 지쳐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사교육 시장도 그에 맞춰 진화했고, 교육의 시장화는 더욱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 결과, 교육을 통한 기회의 평등이나 계층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44) 박채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유입과 적응 실태 연구: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5권 2호 (2011), pp. 81~82; 이수정·양계민, “북한 출신 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 출신 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1호 (2013), pp. 395~421; 이수정, “접촉시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제17권 제2호 (2014), pp. 85~126.

비관론이 지배하게 되었다.

주입식 교육과 공교육의 위기 등으로 촉발된 교육개혁은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5·31 교육 개혁안에서 제시한 원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교육의 ‘수월성(秀越性·excellence)’에 대한 강조이다. 수월성은 문자 그대로 ‘우수함’, ‘탁월함’, ‘뛰어남’을 뜻하며, 대개는 교육의 질적 향상, 교육경쟁력, 엘리트 교육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⁴⁵⁾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강조는 결국 국가가 통제하는 규격화된 교육방식보다는 학교나 학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부여되는 교육방식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 학부모들은 중등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라는 목적 하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학교 내 교육 서비스를 선택하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수월성을 강조하는 교육 원칙은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각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와 성향을 고려하여 학교를 운영해야 하며, 교사들은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수업 시간만 준수한다면 시간표 구성부터 수업 방식까지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고학년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2시 30분

45) 조시오·안관수, “인본주의에 기초한 평등성과 수월성이 균형잡힌 교육정책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11호 (2013), p. 735.

정도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자율수업일이나 참관 수업을 위한 휴일 등은 선생님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⁴⁶⁾

한편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는 결국 교육이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사와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율성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자율성이라는 것은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돌봄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 것은, 바로 학부모의 요구와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특히 맞벌이의 경우) 자신들이 퇴근할 때까지 자녀가 방과후에도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인데,⁴⁷⁾ 사실 학원이 많이 발달한 지역의 학부모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경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학교가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길 원한다. 특히 교육개혁 이후 자율성과 수월성 증진을 명분으로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학교 안에서 일종의 ‘학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수요를 조사하고, 학교는 이를 충족하는 프로그램과 강사를 섭외하여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교과 과정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특성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사실 공교육과 사교육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이들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맞춤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교육개혁의 현실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

46) 현직 초등학교 교사 <사례 22>와의 인터뷰.

47) 위의 인터뷰.

생의 수는 2018년 59.3%인데,⁴⁸⁾ 그렇다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40.7%의 아이들은 어떻게 방과후 시간을 보내게 될까. 흥미로운 것은 방과후학교의 도입 이후 저소득 계층의 사교육비는 감소했지만 중산층 및 고소득 계층의 사교육비 감소는 미미하다는 점이다.⁴⁹⁾ 즉,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참여하며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계층은 사설 교육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⁵⁰⁾

특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 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내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자 사교육이 더욱 성행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방과후학교에 영어나 수학과 같은 교과 중심의 수업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복습 위주로만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원하는 중산층이 대거 외부의 사교육 시장으로 이탈한 것이다.⁵¹⁾ 이는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 학원은 중산층’이라는 의도치 않은 구분을 만들어냈으며, 특히 사교육이 발달한 이른바 ‘명문학군’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결국 획일적 교육의 타파와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고양한다는 목적 의식 아래 ‘교육의 수월성’을 표방한 교육 개혁은 현실적으로는 계층재생산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자본의 투자로 자원과 인력이 대거 투입될 수 있는 사교육보다 더 나은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아무리 정부

48) 교육부, 『2018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및 통계』(세종: 교육부, 2018), p. 1.

49) 김현철 외, 『방과후학교 및 EBS 수능방송의 정책 효과 분석』(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pp. 1~24.

50) 김경근·황여정, “중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9권 2호 (2009), pp. 31~57.

51) 박승재 외, 『방과후학교 참여율 제고방안 연구(TR 2017-89)』(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7), pp. 112~113.

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 공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루어낸다고 해도 사교육 시장은 교육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⁵²⁾ 지배 계층은 교육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재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내재화하게 되는 것이다.

3. 역지대(Liminal Space)의 가능성

데일과 부렐(Dale and Burrell)은 상이한 두 개의 공간이 마주하여 서로 경계를 이루는 지역을 역지대(liminal space · 또는 역공간)로 정의한다.⁵³⁾ 역지대는 마주하고 있는 지배적인 공간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반역’과 ‘다름’의 공간이기도 하다. 역지대라는 용어의 등장에 앞서 ‘역(liminality)’이라는 개념은 터너(Turner)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다.⁵⁴⁾ 그는 변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로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betwixt and between)” 상태를 역(liminality) 혹은 문지방(threshold) 단계로 주목하였다. 이후 지리학에서 ‘역’의 개념을 빌려 ‘역지대(liminal space)’라는 개념을 고

52) 학교와 교육을 통한 계급 재생산에 관련해서 가장 고전적인 연구는 폴 윌리스 지음, 김찬호 · 김영훈 옮김, 『학교와 계급 재생산: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서울: 이매진, 2005)와 피에르 부르디외 · 장 클로드 파세롱 지음, 이상호 옮김, 『재생산: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서울: 동문선, 2000) 등을 참고.

53) Karen Dale and Gibson Burrell, *The Spaces of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Space: Power, Identity and Materiality at Work* (London: Palgrave, 2003).

54) Victor, W. Turner, “Betwixt-and Between: The Liminal Period in *Rites de Passage*,” in *Symposium on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ed. June Helm (Seattle: Proceedings of the Annual Spring Meetings of the American Ethnological Society, 1964).

안해냈으며, 최근에는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 이주민의 정체성 변화와 정착과정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한다.⁵⁵⁾

역지대로 정의되는 곳은 서로 다른 상이한 공간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문만 열고 나서면 전혀 다른 공간과 연계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만큼 역지대는 불안정하기에 역동적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⁵⁶⁾ 역지대에서는 일상적인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 문화 등이 잠시 유보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며, 동시에 그 공간을 실천하고 생산하는 행위자에 의해 전혀 다른 의미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⁵⁷⁾

역지대의 개념을 통일동에 적용시켜보면 임대아파트와 중산층 거주지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초등학교는 두 이질적 공간을 이어주는 역지대로 기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F아파트에 이주해온 탈북민들은 북한의 문화와 습성을 체화한 존재로 남한사회에서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습득한 관념이나 습관을 유지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새로운 문화를 학습하여 적용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만큼 탈북민은 두 개의 문화와 습성이 공존하는 역지대에서 남한사회를 경험한다.

본 연구가 통일초등학교에 주목하는 이유는 F임대아파트 단지외 그 밖의 지역의 거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만나는 상징적인

55) Kate Kirk, Bal Ellen Janssen, and Sarah Renee, “Migrants in Liminal Time and Space: An Exploration of the Experiences of Highly Skilled Indian Bachelors in Amsterdam,”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43, no. 16 (2017), pp. 2771~2787; Antonia Noussia and Michal Lyons, “Inhabiting Spaces of Liminality: Migrants in Omonia, Athen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35, no. 4 (2009), pp. 601~624; Harriet Shortt, “Liminality, Space and the Importance of ‘transitory dwelling places’ at Work,” *Human Relations*, vol. 68, no. 4 (2015), pp. 633~658.

56) 김성홍, “우리 도시 속 이방공간,” 『문화과학』, 제67호 (2011), pp. 247~259.

57) Victor, W.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공간이기 때문이다. 일상 속 다른 공간은 구분되어 이 둘 사이의 만남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자녀의 교육이라는 공간,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는 학생의 거주 지역에 따라 배정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두 집단이 불가피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혼합단지(소셜믹스) 내에서 일반분양자와 임대분양자 사이의 사회적 교류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상 커뮤니티(예: 인터넷 카페) 활동을 주목한다.⁵⁸⁾ 이는 달리 보면 두 집단이 일상생활을 서로 어울려 공유하는 물리적 공간이 사실상 드물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공간은 일반분양자들과 임대분양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교류를 해야만 하는 곳이다. 경제적 자본과는 관계 없이 주거지의 위치에 따라 진학 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교류가 많아진다고 해서 계층적으로 다른 두 집단 간의 반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교라는 곳은 자녀교육을 통해 계층을 재생산 또는 상승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욕망이 투영된 곳인 만큼 차별과 갈등의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일초 주변은 사교육 기관의 밀집으로 교육에 의한 공간적 위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더욱 문제적이다. 이 지역은 주변 지역보다 사교육 학원의 수가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도에 과외 금지가 위헌이 되면서 상업시설 공간의 대부분이 교육기능으로 채워졌고 명실상부한 입시명문 학군으로 변화하게 되었다.⁶⁰⁾

58) 박청호·김지환·구자훈, “혼합단지 내 분양임대 거주자 간 사회적 교류에의 영향 요인 차이 분석: 강일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제18권 3호 (2017), pp. 61~75.

59) 상대적으로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일반분양자들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임대분양자는 복지 및 놀이시설(경로당, 놀이터)에서 여가 시간을 보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서로 간의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고, 이는 계급 간의 공간 구획은 일상의 공간 실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의 글.

이런 맥락에서 이 지역의 일반 민영아파트 거주자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가 많았고, 반면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교육적 수요보다는 도심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 지역을 선호한다. 이렇듯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닌 두 집단이 자녀교육을 매개로 학교라는 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마주할 때 생성되는 다양한 관계 동학이 바로 이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이다. 거기에 통일초등학교의 사례는 단순히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대표되는 주거 계급(housing class)의 문제만이 아닌, 남한주민과 탈북민이 서로 만난다는 측면에서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통일초등학교는 교육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중산층인 일반주택 거주자와 저소득층인 임대주택 거주자, 이 두 개의 세상이 만나는 공간이다.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교육 환경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남한 출신 중산층과 갑작스레 한국사회로 이주하여 경제적,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출신 저소득 계층의 자녀가 만나 교육이라는 매개로 관계를 맺는 공간이다.

탈북민 자녀 학생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한 학생과 대등한 수준은 아니다. 통일초에 재학 중인 탈북민 학생의 비율은 약 15% 정도로, 학교 내에서는 가시화될 정도의 규모이지만 그렇다고 학교의 주류를 이룰 만큼의 수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탈북민 가족은 계급에 따른 사회 불평등이나 문화적 배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고 통일초를 둘러싸고 있는 남한의 교육문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는다. 반면 남한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중

60) 송향숙·박태원, “교육기능에 따른 도시 공간의 변화,”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제8호 (2012), p. 62.

산층의 인식과 습성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진학 전쟁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들의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아버지 또한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학교라는 공간과 학부모 모임 등에서 만난 남한 학부모와 탈북민 학부모는 각자의 문화적 문법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두 집단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목과 배제를 넘어선 사회통합의 실천이 시도되기도 한다. 그만큼 통일초등학교는 ‘역지대’로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문화의 경계이며, 중산층과 경제적 약자가 구획화된 공간 사이에 ‘깁’ 장소이자, 경쟁이 강화된 남한사회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전혀 다른 타자로 인식되어 온 북한사회의 특성이 마주하는 이질적인 공간으로 실천되고 있다.

4. 소결

주지하듯 공간은 단일하거나 동질적이지 않다. 공간은 그 공간을 살아내는 행위자와 공간에 배태된 문화, 자본, 사회구조에 따라 다층적이며, 불균질하게 구성된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더라도 행위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 공간은 평등하며 열린 기회의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억압적이며 배제가 작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 시내의 한 북판, 통일동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 주택 계급, 교육 및 문화적 자본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이 공간을 실천하고 있다.

통일동은 누군가에는 자신의 자녀가 교육자본을 획득하여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들에게는 높은 주택가격을 지불해서라도 통일동이 제공하는 좋은 학군과 교육 시설을 향유하여 계층을 재생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통일동은 정부가 제공해주는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극단적인 궁핍함을 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경제적 곤궁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지만 빈곤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또한 겪고 있다. 그만큼 통일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구별된 공간 실천을 하고 있다.

통일동은 다양한 공간적 기제를 통해 임대아파트 단지과 통일초등학교가 위치한 공간을 주변 지역과 분리하고 있다. 좁은 일방통행로, 제한된 차도, 도드라지는 위치에 건축된 임대주택과 통일초등학교는 공간의 배열과 구획을 통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에 주거계층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본 연구는 서울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분류되는 통일동에서 ‘학교’라는 매개공간을 통해 만나게 되는 두 집단의 상호관계와 통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특히 본 연구가 ‘초등학교’라는 공간을 주목하는 이유는 일상에서는 접촉할 일이 적은 두 주거계층이 행정구역에 따라 일괄적으로 배정된다는 점에서 갈등의 가능성을 노정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열화가 덜 진행된 교육공간인 만큼 교류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초등학교는 일종의 ‘역지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두 집단은 통일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접촉의 기회를 통해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 그러나 ‘역지대’의 불안정성 또한 작동하고 있어 남북

한 출신 학부모 사이에 문화적 거리감이나 사회적 계층의 차이가 더욱 전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통일초등학교의 경험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는 일면적 평가로 단순화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통일초등학교라는 ‘역지대’를 하나의 사례연구로 삼아 그 안팎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류의 경험을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두터운 기술이란 인류학, 사회학 등 인간 행동을 다루는 학문 영역에서 인간행동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발생한 문맥을 함께 설명하는 기법을 의미한다.⁶¹⁾ 본 연구는 두터운 기술 기법을 통해 남한주민과 탈북민 간에 배제 또는 통합이 작동하는지, 작동한다면 그 배경과 맥락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또한 통일초등학교가 두 집단의 긴장을 이완하는 완충지대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남한주민과 탈북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한국사회에 의미 있는 함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61) 미국의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Cliford Geertz)는 저서 『문화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에서 영국의 철학자 길버트 라일(Gilbert Ryle)이 제안한 개념을 빌려 ‘두터운 기술’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클리퍼드 기어츠 지음,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서울: 까치글방, 2009) 참조.

III.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윤보영 (동국대학교)

김수경 (통일연구원)



1. 통일구의 교육환경과 탈북민의 적응

가. 중산층 교육문화에의 적응

통일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탈북민 학부모들은 통일구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대도시인 서울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막연하게나마 아이를 대도시에서 키워야 향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가능성과 기대를 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음 주거지를 배정받을 때 서울을 희망했고 배정받은 위치가 서울에서도 통일구라는 점에 대해 만족했다.

통일구는 내가 선택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도시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키우면 아이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내 가정을 이루고 발전시키는 데 통일구가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도상으로 볼 때 중심지고 교통이 좋아 보였어요. <사례 2>

부모님이 먼저 입국해 서울 ○○구에 살고 계세요. ‘일단 아이를 키우려면 서울에서 키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거주지를 배치받을 때 통일구, ○○구, XX구, △△구 중에 고를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구에 살고 계신데, 여기는 조선족이 많다고 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이 키우기 별로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부모님이 통일구를 권했어요. 이쪽이 아이 키우기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며... <사례 1>

이들은 통일구가 교육열이 매우 높고 학군이 좋다는 것에 대해 명료하게 인지하고 있다기보다는, 막연하게 ‘시골’보다는 ‘도시’가 자녀교육 측면에서 더 좋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교육열’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입시경쟁, 사교육,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집착과 열망이 담겨 있다.⁶²⁾ 그러나 탈북민은 통일구의 높은 교육열에 대해 자녀의 교육을 둘러싼 학부모 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라기보다는, 공부하기에 좋은 여건이 구비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일구가 교육열이 높다는 건 들었어요. 좋았죠 뭐. 아이가 교육이 높은 데서(교육 환경이 좋은 데서) 공부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아무리 공부 잘해봐야 공부가 바닥에 떨어지잖아요(실력이 좋지 않잖아요). 서울에 올라오면 교육지대는(교육환경은) 서울이 낫겠지요, 지방보다는. 북한도 같아요. 시내는 시내고 시골은 시골이에요. <사례 10>

이들은 지역주민,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통일동의 학구열과 학군에 대해 서서히 인식하게 된다.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학원에 보내야 한다’,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자녀교육의 ‘문법’ 내지 ‘문화’를 주변의 말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려면 학원에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랄 때는 학교 다녀오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학교에서 아이가 잘하면 되지 엄마가 나서야 할 일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 입학할 때 학교 주변에서 학원 전단지들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걸 다 받아서 일일이 전화를 해봤어요. 학원비가 너무

62) 남미자·배정현·오수경, “교육열, 능력주의 그리고 교육 공정성 담론의 재고: 드라마 〈SKY 캐슬〉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29권 2호 (2019), p. 132.

비싸더라고요. 일단은 아이가 운동을 좋아해서 태권도 학원 하나 보내주고 있어요. <사례 1>

저를 담당하는 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학원은 꼭 보내야 한다고. 한국에서는 그래서 부모들이 돈이 많이 든다고. 애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방과후 수업도 받는데 그렇게까지 애를 달달 볶고 싶지 않았어요. 경제적 형편도 어렵고... 그런데 형사님이 아이가 4학년이면 공부를 더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지를 국어, 영어, 수학 시키고 있어요. <사례 3>

중산층 밀집지역의 중학생 학부모를 연구한 김미숙·상종열에 따르면 ‘자녀관리’의 문화는 자녀의 성적, 시간, 교육, 교우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녀에게 사회적 지위를 세습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문화이다.⁶³⁾ ‘자녀관리’ 문화는 중산층의 지위세습에 대한 욕망과 불안을 잘 드러내는 일종의 교육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⁶⁴⁾ 통일구 역시 서울의 대표적인 중산층 밀집 지역으로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 또는 계층 상승의 동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통일구 학군에서 공유되는 이른바 자녀교육의 문법은 탈북민이 한국 학부모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질성을 확인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일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탈북민 학부모는 남한 학부모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선 이들은 특별히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공부와 학교생활은 전적으로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일 뿐 부모가 나서서 아이의 교육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3) 김미숙·상종열, “중산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학부모들의 자녀교육문화: 분당구 사례,” 『교육사회학연구』, 제25권 제3호 (2015), p. 1.

64) 위의 글, p. 26.

(교육이라는 건) 학교에서 배워주는 게 기본이잖아요. 북한은 학원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학교에서 100% 가르치거든요. 여기는 이상한 게, 학교라는 게 공부 가르쳐주는 곳인지, 애들 그냥 가서 구울이나 배우고 오는 곳인지... 학교는 대충 가고 왜 학원에만 저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에서 다 배워줬으면 좋겠어요. <사례 5>

북한에서는 엄마가 아이 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엄마의 역할이라는 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굉장히 기능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학교는 아이가 다니는 거고, 준비물을 챙겨야 하는 사람도 아이고, 준비물을 안 챙겨 가서 혼나는 사람도 아이인 거죠. 남한에서는 엄마가 아이의 모든 것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엄마가 친구도 만들어줘야 하고, 가방도 챙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한국에 오니까 알림장이 부모 핸드폰으로 오대요. 그건 곧 엄마보고 챙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북한에서였다면 절대 안 챙겨줬을 거예요. <사례 1>

탈북민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한국사회에서, 또는 교육열이 높은 통일구에서 ‘학부모가 된다는 것’의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탈북민은 남한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북한에서 교육받은 자신의 교육경험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교육체계가 매우 느슨하고 불안정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학교를 다녔다. 이들은 공교육의 관심은 물론 가정 내에서도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시선에서는 자녀 교육을 정규 교육기관인 학교에 맡기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나서 사교육 기관을 알아보고 어린 학생을 밤늦게까지 학원에 보내는 모습

이 의아하게 느껴진다.

북한에서는 사교육은 없고 공교육만 있어요. 남한의 교육열은 너무 오바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이 많고 잘 사니까 그러는 거 같은데 너무 지나친 거 같아요. 자신의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자녀가 잘되는 것으로 채우려는 욕심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이가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례 3>

우리 엄마들(탈북민 학부모)도 그 엄마들(남한 학부모)처럼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죠. (북한에서는 부모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많이 못 주거든요. 우리 부모들(탈북민 학부모)은 대부분 그래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자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공부도 좀 하고 노력도 하고..., 우리 부모(탈북민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도 많이 참여해서 한국 사람들 하고도 친해지고 그러면 좋겠는데...(잘하지 못해요). <사례 6>

탈북민 중에는 자녀교육을 위해 남한 학부모를 관찰하며 배우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 애쓰지는 않는다. 남한 학부모와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의 교육체제나 사교육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사례 2>에 따르면 남한 학부모와의 대화에는 학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학원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 내용에 이르기까지 남한 학부모의 이야기에 는 모르는 용어가 가득하다. 물론 모르는 것을 물어가며 대화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자녀의 친구 부모에게 자신이 무언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무척 난감한 일이다.

(남한 학부모는) 그거 세계 얘기해요(학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느 학원이 좋다. 그 집 아이는 어느 학원 보내요?” “영어학원 보내요”하면 또 뭐 물어보고, 나는 잘 모르니까 답변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 아이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외래어로 말하니까 나는 잘 못 알아듣는데, 그냥 “엄마들 진짜 수고 많네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사례 2>

탈북민 학부모가 남한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남한 학부모와의 교육 정보를 나눈다는 것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 뒷받침된 후에야 가능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은 자신이 형편상 북한에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만큼은 대학까지 보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남한 학부모가 공유하는 교육 정보에는 너무 큰 경제적 비용이 담겨 있어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누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학부모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탈북민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 일부는 낯선 남한의 교육방식 대신, 북한에서 익숙했던 교육방식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를 통해 자녀의 학업이 나아지길 기대한다. <사례 9>는 자녀가 같은 반 학생들의 공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자녀를 새벽 4시에 깨워 예습과 복습을 하게 시키기도 한다. <사례 9>는 이를 통해 자신이 학부모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느낀다.

저는 공부 많이 시키려고 무조건 공부해라 막 내려 먹였었어요
 (일방적으로 시켰어요). 숙제를 다 하고 또 복습, 또 연습시켰거든요.
 중국에서는 숙제를 몇 개씩 내주고 그거 못하면 학교에서 선생

이 야단치거든요. 북한도 다 한가지거든요(마찬가지거든요). 애가 스트레스 받고서 인상이 이래 갖고(짱그림) 학교 가거든요. 난 조급하거든요. <사례 9>

북한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탈북민들은 남한에서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란다. 그러나 이들의 시선에 남한의 교육방식은 북한의 것보다 너무 느슨하다. 학생에게 너무 많은 자율권을 주며 학생에 대한 훈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통일초는 혁신초라 숙제가 없어요. 하루는 탈북민 아빠가 학교에 와서 교장선생님이랑 교감선생님을 만나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숙제를 안 내주냐, 이게 무슨 학교냐, 학교에서 속성교육을 시켜줘야지, 내가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그런다, 애를 공부시켜서 공무원 정도는 해서 먹고 살게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도 소리를 질러대서 학교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숙제가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16>

탈북민 학부모 중에는 남한 학부모처럼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8>은 두 아들을 통일초에 보내며 학교에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열심히 참여한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수재학교'에 갔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열은 자녀에 대한 바람을 실제로 이루게 해줄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사례 8>은 수재학교가 어떤 학교를 의미하는지, 수재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한 학부모에게 정보를 구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자녀가) 수재학교 갔으면 좋아요. [질문자: 수재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원하는 대로 면접 봐서 되면 보내는 곳 같더라고요. [질문자: 수재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 적이 있나요?] 알아보긴 했어요. 인터넷도 보고 TV도 보고. [질문자: 다른 엄마들하고 얘기 나눠본 적이 있나요?] 안 했어요. [질문자: 학부모 모임에 가고 남한 엄마들이랑 소통도 하잖아요?] 그분들은 여기 분들이잖아요. [질문자: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같이 보내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나요?] 네. 그런데 “안 할래요” 저는 그러죠. [질문자: 남한 엄마들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우리 애가 어쩔어, 어느 학원은 어땠어, 어느 선생님은 어때... [질문자: 듣고만 있나요?] 듣고만 있죠. <사례 8>

결국 탈북민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과 욕망이 있더라도 남한사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남한 학부모에게서 듣게 되는 정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을 뿐더러, 설령 이해하더라도 경제적 비용이 부담스러워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탈북민이 자녀교육에 소극적이 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자녀에게 새벽공부를 시키는 등 과한 교육방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어떤 것도 남한의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나. ‘북한’의 정체성과 자녀교육

자녀를 가진 탈북민은 학부모라는 지위가 남한사회로의 통합을 강제하기도 방해하기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먼저 이들은 자녀를 남한사회에 정착시켜야 할 강력한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는 부모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즉, 본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괴리되는 것은 자녀의 정

착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남한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자녀가 탈북민 자녀라는 낙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두려워 본인의 북한 출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내가 애들 없이 혼자 한국에 있다면 엄마들이랑 교류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책임지면 되니까요. 우리 애들(중국 출생)은 중국에서도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았는데 남한에 오니까 한국말이 안 돼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임을 스스로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한국 애들이랑 소통을 시켜주고 싶은데 한국 엄마들 사이에 끼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중국 출생 아이를 둔 탈북민 엄마들 모임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나는 사실 이 모임에 나가기 싫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지 탈북민들이랑 어울리기 싫거든요. 하지만 어떡해요. 애들이 거기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데… 〈사례 2〉

아이만 아니면 내가 북한 출신인 걸 밝히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만 아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에서는 내가 북한 출신인 걸 다 알아요. 내가 북한 출신인 걸 밝혀도 해가 되는 게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경우에는 북한 출신이라는 게 밝혀지면 주변 엄마들도 재량 놀지마, 이상한 아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걱정돼서 절대 엄마들이랑 만나지도 않고 북한 출신인 걸 노출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례 1〉

탈북민 학부모들은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이 본인의 문제가 아닌 자녀의 문제로 전이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은 오랫동안 북한에 살았고 북한 억양과 북한 문화가 몸에 배어 있다 보니 북한 출신임을 숨기는 것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굳이 숨기려 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겪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는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작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때문에 탈북민 학부모들은 자녀의 탈북민 출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우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에서 출산한 아들을 다섯 살 때 데리고 나온 <사례 1>은 아이의 뇌리에 북한에 대한 기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을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남한에서 아이의 적응이 어려워질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 탈북여성은 친구들에게 절대로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말하지 말 것을 아이에게 신신당부하였다.

처음에는 아이가 북한에서 살았던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에게 북에서 온 거 자체를 아예 부인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클수록 북한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나 보더라고요. 기억 못 하길 바랐는데... 언젠가 북한에서 할머니 용돈을 받아 장난감을 사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아이가 장난감을 너무 많이 사달라고 떼를 써서 제가 혼낸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때는 TV도 너무 재미없었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절대로 친구들에게 북한에서 온 걸 티내면 안 돼”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왜”라고 묻더라고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라고 말해줬더니 더 이상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사례 1>

그리고 아이는 결국 이러한 부모의 부정적 시선을 직·간접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부모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진 않지만 TV와 같은 언론매체, 주변의 말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남한사회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눈치 채게 되는 것이다.

왜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이도 어렵
뜻이 알고 있는 거 같아요. TV에서 북한 관련 이야기는 주로 나쁜
이야기가 많으니까... 아이가 그런 것을 보고 짐작하는 거 같아요.
예전에 북한에 살 때 TV에 김정은이 나오면 원수님 나왔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은 TV에 김정은이 나오니까 욕을 하더라고요. 깜
짝 놀랐어요. 남한과 북한이 뭔가 적대관계라는 걸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사례 1>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경우에는 본인을 중국인으로 생
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탈북민 여성이 중국에
체류하며 중국 남성과 낳은 자녀들이다. <사례 2>는 중국에서 10년
간 거주하며 중국인 남편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중국
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첫 아이가
열 살쯤 되었을 무렵 가족 모두 한국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이
여성의 아이들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상태였고 중국어를 모국어
로 구사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중국 동포로 알려져
있으며 엄마가 탈북민인 사실은 자녀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중국 아이로 생각해요. 중국에서 태
어난 아이들이니까요. 굳이 엄마가 탈북민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한국 엄마로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중
국 조선족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로 알아요. 마치 자식이 부모 잘
못 만난 것처럼, 나라를 잘못 만나서 북한에서 태어난 건데, 그걸
굳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 스스로도 그냥 내가
탈북민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탈북민이 아니니
까 탈북민이라는 시선이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탈북민이 아니니
까. <사례 2>

중국에서 출생한 중도입국 탈북민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를 거의 구사할 수 없고 중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것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만, 한편으론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이에게는 북한이라는 정체성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중국에서 태어났으니 고향이 중국이고, 중국어를 훨씬 잘하고, 그렇지만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니 한국 사람도 되는 거고. 아이는 탈북민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몰라요. 엄마는 고향이 북한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탈북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이 머리 속에 없어요. 그냥 북한에 친척이 있다는 정도? 통일이 되면 만나야 할 친척이 북한에 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사례 3>

다. 학교와 학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통일초의 탈북민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핵가족 가정의 모습에서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아버지가 없는 경우,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크는 경우 등 소위 ‘정상가족’이라 불리는 범주에서 벗어나 자녀 또는 손자·손녀를 키우는 탈북민들은 이러한 가정환경 때문에 아이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⁶⁵⁾ <사례 5>는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간 딸을 대신해 손자를 양육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과 엄마가 아닌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손자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학부모가 학

65) 김희경은 소위 ‘정상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강박이 미혼모, 외국인 가족 등 ‘비정상가족’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서울: 동아시아, 2018) 참조.

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참여도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과 말은 전혀 섞지 않는다.

(학부모 참관수업) 끝나고 집에 와요 그냥. (다른 학부모와) 사귀는 건 내가 조금 싫어하거든요. 서로 간에 “저는 누구 엄마예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 할머니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애가 엄마랑 같이 안 있고 할머니랑 같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른 엄마들이 하는 게 싫어가지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와요. <사례 5>

탈북민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과 자녀만 탈북하고 아이의 아버지는 아직 북한에 있는 경우, 중국인 남편이 아직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 중국인 남편이 한국에 입국했지만 한국말을 할 수 없어 학부모로서 한국에서의 자녀교육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들의 눈엔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통일동의 문화가 생경하게 느껴지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자녀에게 미안함을 안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빠들의 역할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지금 아빠가 없잖아요. 탈북민인 건 감추면 돼요. 나만 안 나서면 탈북민인 건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학예회를 하는데 아빠들을 무대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올라갔어요. 그때는 웬지 다들 나만 쳐다보는 거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남한) 아빠들은 너무 열성적이에요. 어린이집에 가보면 다들 아빠들이 데리러 와요. 그때 아들 친구들이 “너는 아빠 없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공개수업 때도 보니

까 다들 아빠들이 오고 그러는데…. 아빠가 없으면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례 1>

특히 중국인 남편을 한국에 데려온 경우, 중국에서는 중국인 남편이 보호자였다면 한국에서는 탈북민 여성이 실질적인 보호자이자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중국인 남편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의 아주 간단한 부분들도 탈북민 여성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사례 4>는 중국에서 한족과 결혼해 낳은 아이와 먼저 한국에 입국했으며, 뒤늦게 한족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다. 중국에서는 모든 일을 남편이 해결해주었지만 한국에서는 아내가 생계를 해결한다. 남편은 중국에서 자신이 가장으로 역할했던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월급을 떼이기도 하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 사실상 중국인 남편은 자녀교육은 물론 한국 생활 전반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이는 가정 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남편도 말 모르고 적응하기 어려운데 내가 남편을 위로해주고 해야 하는데 나는 또 남편이 날 생각 안 해준다고 막 화내고…. 남편은 남편대로 화내고 나는 나대로 화내고 둘이 맨날 소리지르고 창피하고 그랬거든요. (생략) 내가 중국에 와서 말 모를 때 남편이 생각해주 것처럼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내가 미안하다. 당신이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용서가 안 된다고…. 사과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2년을 가더라고요. <사례 4>

<사례 9> 역시 중국인 남편과 결혼해 중국에서 20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다. 중국에 불법체류자로 거주하며 사소한 일로 고발을 당해 중국 경찰에 붙잡혀 갔을 때마다 남편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힘들

게 모은 돈으로 뇌물을 써 자신을 빼내주었기 때문에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사례 9>는 중국에서는 남편이 올타리였다면 한국에서는 자신이 남편의 모든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한국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탈북여성들은 본인들도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도맡다 보니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남한은 자녀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탈북민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남북한 교육의 차이는, 북한에서는 아이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이 교사였다면 남한에서는 그 존재가 부모, 그중에서도 엄마라는 점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때는 교사에 대한 많은 의존을 할 수 있었던 반면, 남한에서는 아무리 학교에 호소를 해도 결국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북한에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애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학원으로 돌리니까 선생님하고는 별로 소통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다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수업 중) 땡. 집에 가. <사례 8>

북한은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 선생님이 계속 맡아서 해요. 선생님이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성격, 성향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애는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해야 말을 잘 듣고, 성향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애들하고 대화도 잘되고 엄청 그렇거든요. 애들도 엄청 좋아하고. 선생님이 애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면 애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학년마다 바뀌니까 애들이 정들라 하면 바뀌고 계속 그러니까. <사례 5>

이럴 때 학교가 적극적으로 탈북민 학부모에 대한 별도의 모임과

교육을 주선하는 것은 큰 힘이 된다. 이들은 북한 출신임이 드러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인 교장선생님이 모임을 소집해 자신들의 가정형편을 물어봐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점은 없는지를 물어봐주는 상황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교장선생님이 소통을 많이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북한 엄마들만 초청을 해서 맛집에 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제가 (다른 탈북민 엄마들에게) 전화를 해서 “오세요 오세요” 권했어요. (탈북민 학부모들은) 거의 안 모이려고 그래요. 한 30명 정도 되는데, 모임에는 10명 올 때도 있고 6명 올 때도 있고. <사례 8>

교장선생님도 오고 어울림반 책임지시는 선생님(통일전담교육사)도 계시고, 우리 탈북민 가족이랑 같이 앉아서 의견소통을 해요. ‘아이들한테 나오는 혜택이 있는데 참석시켜라’ 이런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부모들은 아이에게 어떤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는지 물어봐요. “누구 어머니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거든요. 다음부터 우리도 인맥이 있었지요(생겼지요). 교장선생님이 많이 봐줬죠. 특별히 봐주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왔죠. (교장선생님이) 우리 애가 성격이 밝대요. 밝고 예의가 바르다고. 적응이 더 잘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칭찬을 해주면 막 뭐 (열심히) 하려는 게 있잖아요. 달라져요, 칭찬을 해주면. <사례 9>

이들은 교장선생님이 소집한 이 모임을 통해 자신들도 한국 학교에 “인맥이 생겼다”고 느끼며, 교장선생님이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눈에 들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학교가 탈북민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탈북민 학부모의 관계 맺기

가. 남한 엄마들에 대한 ‘관찰’

탈북민 학부모들 중에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이의 학교 생활과 교우관계를 돕는 것이 남한의 자녀교육 문화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남한 학부모와의 모임이나 만남을 차단하는 경우도 많았다. 엄마들 모임에서 본인이 북한 출신임이 드러날 경우 아이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들에겐 학부모 모임을 기피하는 것이 남한의 학부모 문화 속에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학기 초에 반 대표 엄마로부터 몇 날 몇 시에 엄마들끼리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실 생각인데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면 대화를 나누게 될 테고, 그러면 내 말투 때문에 북한에서 온 게 티가 날까봐 일부러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 뒤로도 몇 번 그런 초대를 받았지만 있는 핑계, 없는 핑계 다 대면서 절대 안 나갔어요. 내 말투 때문에 북한 출신인 게 알려지면 엄마들이 집에 가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할테고…. 그나마 우리 아이가 어렵게 사귀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갈까봐. 불안감이 엄청 심했어요. 엄마들끼리 친해야 아이들도 친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전혀 안 나서면 친구를 못 만들어주고, 그런데 내가 나서면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 게 오히려 방해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례 1>

그러나 이들은 남한 학부모, 나아가 남한주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처음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학부모 모임을 갈 때, 취업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등 남한 생활에서 정보가 필요한 지점에 처하게 될 때 정보를 구할 대상의 범위가 넓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원 교육 수료 후 사회로 진출한 탈북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지만,⁶⁶⁾ 삶의 곳곳에는 긴밀하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소소한 사항들이 많고 그때마다 정부기관에 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이들은 남한주민들과의 만남과 모임이 정부로부터의 금전적인 지원보다 남한생활 적응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처음에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한 멘토와의 만남 행사가 있었어요. 남한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줬는데, 이런 만남이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절실해요. 이런 모임이 있으면 직장에 휴가를 내서라도 꼭 가요. 남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 살면서 느끼는 게, 우리들(탈북민)은 부족한 게 인맥이라는 거예요. <사례 1>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들은 많은 경우 남한주민들을 배움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한주민들은 예절바르고 교양 있는 태도를 보이지만 본인은 억세고 투박한 말투와 행동이 남한사회에 어울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탈북민들은 자신의 특색 있는 억양을 거칠고, 가난하고, 교양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식의 ‘살랑살랑’한 말투를 배우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남한문화의 습득은 남한주민과의 교류보다는 주로 관찰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었다.

66)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9), p. 208.

한국분들하고 얘기하면 말을 사랑사랑 요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절방법은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늙은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북한이랑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지하철에 앉아서 상대방하고 전화할 때도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북한에서 태어났지, 중국에서 힘들게 살았지, 그러다 보니 악 밖에 안 남고. 전화할 때 알!! (목소리를 높이는) 이러는 게 난 싫거든요.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나도 많이 배우고... <사례 9>

이들은 놀이터, 도서관, 쇼핑센터 등 일상의 공간에서 남한 학부모가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관찰하며 한국에서 학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습득한다. 이들은 남한 학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러운 말투로 대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평가하면서, 본인 역시 그러한 부모로서의 양육 태도를 본받으려고 하였다.

나 자신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애가 막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울컥 했겠는데(화를 냈을 텐데) 이 엄마(남한 엄마)는 차분하게 화를 안 내더라고요. 놀이터에서나 쇼핑할 때 보면 (남한 엄마들은) “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혼내기도 “엄마가 널 혼내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해요. 너무 부러워요. (나는) 그놈의 성격이 자꾸 울컥울컥 해가지고, 내가 좀 참으면 되겠는데 화를 내고 많이 후회도 하고. <사례 6>

나. 탈북민 부모 간의 갈등

‘교양 있는’ 남한 학부모에 대한 선망은 한편으론 탈북민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탈북민 학부모들은 탈북

민끼리의 모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탈북민끼리의 만남은 남한사회 적응에 방해가 되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본인 스스로 북한 출신이면서도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내재화하고 있었다.

탈북민 엄마들 모임이 있는데 솔직히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한국사람들,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임에 가고 싶지, 사는 게 힘들고 짜들어 있는 탈북민들 모임에 가봐야 서로 싸우거나 하고... <사례 2>

1년에 두 번씩 하나센터에서 탈북민 모임 만들어서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안 나가요. 탈북민끼리 이야기 나눠봐야 서로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겪은 게 전부인 사람들끼리 계속 이야기 나눠봐야 뭐 해요. 서로 틀린 얘기를 자꾸 답이라고 우기니까. <사례 1>

<사례 6>은 이러한 탈북민의 모습을 ‘가시소년’이라는 제목의 동화책으로 설명한다. ‘가시소년’은 마음속의 외로움, 두려움, 불안함이 가시가 되어 온몸이 가시투성이가 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자녀의 책을 함께 읽다 감명을 받았다는 이 탈북민은 주변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과 다르게 사람들과 자주 다투게 되는 가시소년의 모습이 꼭 탈북민 같다고 말했다. <사례 6>은 가시를 하나씩 뽑아서 서로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예쁘게 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도 예쁘게 말하기를 가르치며 함께 연습한다.

‘가시소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그 책을 보냈더라고요. 애가(주인공이) 가시인 거예요. 온몸이. 누가 다가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가시를 하나하나씩 뽑아서 예쁘게 만드는

과정을 그린 책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해요?” 하면 “예쁘게 말해야 해요” 이렇게 (연습)해요. <사례 6>

탈북민이 서로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며 갈등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거주하다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숨기고 싶은 복잡한 사연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비밀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탈북민이며, 그러한 비밀들은 갈등이 불거졌을 때 가장 아픈 말이 되어 상대방을 찌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아픈 약점이 드러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탈북민을 경계하고 그들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해도 되는 정도까지만 관계를 맺는 것이다.

쌍욕을 엄청 많이 해요. 참을성이 없고 배려심이 없어요. (생략)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겠죠. 계속 쪼이는 데서 살고 무서운 데서 살고 하니 사람들이 마음에 약 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신경이 요렇게(손가락 마디 끝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건드릴까 봐. 조금만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막 욕하고 싸우고... <사례 6>

나도 북한에서 왔지만 북한사람들 상대하기 싫어요. 말세질(이간질)하고 뜯게질하고(헐뜯고) 싸움하고... . 같잖은 일 가지고. 북한에서 힘들게 살고 중국에 와서 환경이 좀 그래서 성격이 변했는지. 요만한 말 가지고도 말 잔뜩 불귀 가지고(부풀려가지고) 말을 보태고 싸움하고. <사례 9>

스무 살에 탈북해 중국에서 9년 동안 거주했던 <사례 2>는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해 매우 말을 아꼈다. 한국에 입국해 남한에 먼저 와 있던 가족을 만났지만 이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아 했다. 북한

에서의 생활, 중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으며, 그녀의 배경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대화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이 여성은 통일초에 탈북민 자녀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는 통일초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하지만 탈북민 모임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으며 자신은 그런 모임을 싫어한다고 강조하였다.

저는 아이를 통일초등학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남한아이들이 많은 곳에 보내고 싶었어요. 남한에 살면 남한사람이랑 학습을 해야 빨리 정착도 되고 남한에 대해서 빨리 알 수 있잖아요. 저는 (남한) 엄마들이랑만 상대해요. 이해심이 많아 보이고 소통도 우리사람(탈북민)보다 더 잘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통일초에는 우리사람(탈북민)들이 많아서 저는 안 좋아해요. (남한 학부모하고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다 보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많고요. <사례 2>

흥미로운 것은 탈북민 내부에서 발생하는 ‘구별짓기’의 시도이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동기, 탈북 경로 등 각기 상이한 배경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동일하게 ‘탈북민’이라는 범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은 내부적으로 ‘나는 너와 같지 않음’을 부각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교양있는’ 한국 엄마들을 동경하는 모습과는 대비를 이룬다.

남 잘사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자기가 못 사니까. 재는 비싼 거 입었네. 그러면 나도 저거 사 입어야지. 내가 왜 너보다 못하지? 다들 수수하게 입는 것 같아도 엄청 신경을 써요 서로. 돈보이고

싶어서, 북한 사람들끼리 옷 입는 걸로 서로 경쟁해요. <사례 8>

3. 탈북민의 계층인식과 자녀에 대한 꿈

가. ‘평범한 삶’에 대한 희구

면접에 응한 탈북민들은 자신의 자녀가 통일구 학군의 교육열을 통해 계층 상승을 하길 바라기보다는, 자녀가 교육과정을 무난하게 마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랐다. 다른 학생과 견주어 뛰어나게 공부를 잘할 필요도 없으며,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심리에 기저에는 북한 또는 중국에서의 삶이 너무 고되었던 경험이 깔려 있다. 이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궁핍함을 경험했으며, 심지어 이러한 궁핍함으로 자녀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탈북민들은 그저 평범하고 평안하게 일생을 사는 것이 자녀에게 바라는 최대치의 목표로 나타났다.

저는 큰 애를 잃었어요. 딸이었거든요. (살아)있었으면 스무 살. 아직도 내 옆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낳고 일주일 있다가. (제가 중국에서) 쫓겨 다녀서 (뱃속에서) 애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사례 8>

<사례 4>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장사를 하러 나섰던 남편이 기차 사고로 사망한 후 언니에게 두 아이를 부탁하고 돈을 벌기 위해 탈북했다. 그러나 그녀는 중국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먼 시골의 한족 마을에 넘겨졌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았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7년을 보낸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북한에 있는 언니와 연락이 닿았는데 자신이 떠나온 이듬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중국에서 한 3년 일하면 그 돈 가지고 (북한에) 와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니까 (언니가) “아이는 걱정하지 말고 길이 나아졌을 때 빨리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등 떠밀어서 탈북을 했는데 탈북하고 나서 7년 만에 언니랑 연결이 됐었어요. 우리 작은애(아들)가 내가 온 다음 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결핵으로 먹지 못해 죽었다고. 그것도 7년 만에 안 거예요. <사례 4>

<사례 4>는 2013년 중국에서 낳은 네 살짜리 아들과 함께 남한에 입국했다. 노인요양원에서 요양사로 일하며 월 170만 원을 벌었다. 생활비 외에도 북한에 남아있는 딸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기 때문에 아들을 기숙형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⁶⁷⁾ 그러나 아들이 매일 울면서 전화를 하고 아팠기 때문에 요양원을 그만두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교육보다는 아이가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일 수밖에 없었다.

일을 하니깐 애를 돌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깐 밥을 알아서 챙겨 먹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기숙사로 보내버렸어요. 애도 울고 나도 많이 울었어요. 선생이 맨날 아이가 어찌고저찌고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이런 거 요구 안 한

67) 탈북학생은 학교 이외에도 대안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크게 대안교육시설, 방과후 공부방, 그룹홈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기숙형으로 운영된다.

다. 그냥 빨리 한국에 적응할 수만 있게 해 달라.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게만 해 달라” 계속 그 말만 했어요. “우리 애한테 공부 못한다 어쩐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도 마시고, 저는 그런 말 듣기도 싫고, 공부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매번 울면서 당부를 했어요. <사례 4>

<사례 10> 또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북한의 의류 공장에서 봉제기술사로 8년 동안 근무했지만 한국에서는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해 보조원으로 일해야 했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해야 하는 근무환경에 분개했다.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은 자녀를 키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곳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탈북민의 계층 상승의 꿈을 좌절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자녀의 평범하고 안정된 미래에 대한 바람은 탈북민 스스로가 남한사회에서의 탈북민의 계층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들에게 탈북이란 곧 남한사회를 “빈주먹”에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통일구의 중산층 남한 가족이 꿈꾸는 계층 재생산이나 계층 상승을 꿈꾸지 않으며, 남한 사람들은 아예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

탈북민은 빈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남한 사람들이랑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남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고 탈북민은 이제 막 온 사람들인데, 그런 비교를 하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비교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사례 3>

북한에선 남편이 직업군이었는데 군인이면 사회적으로도 경

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꽤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탈북으로 남편이 제대되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때 워낙에 충격이 컸지만, 그때 훈련이 돼서 그런지 한국 와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나올 때는 다 빈주먹으로 오잖아요. 경제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니까 나는 제일 낮은 계층이라고 생각해요. 애한테 크게 기대는 없어요. 지금은 어차피 다 바닥이니까, 크게 바라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사례 1>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것에 대해 자신이 ‘바닥’계층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에 응한 탈북민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었는데, 자신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기초생활수급비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의 계층 상승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이루면..., 그때가 되면 아이 친구들의 부모에게도 내가 북한 출신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남편도 없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고..., 사람들이 안 좋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취직도 하고 바로 서는 날이 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말하려고 해요. <사례 1>

나. 임대아파트 거주경험과 계층인식

면접에 응한 탈북민 전원은 F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북한에서의 거주 환경과 비교해 쾌적한 환경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할 수 있기 때문에 F임대아파트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술 먹고 대(大)자로 누워있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단지 내에 늘 술을 마시는 사람이 서너 명 돼요. 아이들이 보면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1>

F아파트는 다 좋은데 안 좋은 사람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단지 내를 지나다니다 보면 애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른 동네 많이 다녀봤지만 이 아파트에 유독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례 2>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탈북민은 거친 이웃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들의 시선에 임대아파트라는 공간은 영세민, 장애인, 탈북민, 국가유공자 등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밀도 높게 모여 있는 긴장의 공간이다. <사례 8>은 한국전쟁 국가유공자 가족으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다. 북한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다 가족이 사망한 사람이 탈북민과 한 공간에 거주하는 아이러니는 탈북민들로 하여금 한국사회가 여전히 이념적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동네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북한 것들 애들이랑은 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아파트 단지가 큰데, 6·25때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애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욕설을 퍼붓고 그래요. (예전에) 길을 익히느라고 아기 업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동네에 평양냉면 집에서 우리 분들(탈북민들) 나오라고 냉면 나눠준다고 했어요. 어떤 어르신이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는 안 주고 북한 것들은 주느냐, 우리 세금만 처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생략) “어르신도 임

대아파트에서 사시면 영세민 아니세요? 세금을 얼마나 내셨길래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먹고 산다고 욕하느냐” 그랬더니 “젊은 년이 토를 다냐”고 일어서서 소리 지르고 거품을 물고 그러는 거예요.
<사례 8>

탈북민들은 F임대아파트를 “(공중 위에) 떠 있는 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F임대아파트가 주변의 일반 민영아파트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마치 ‘섬’처럼 존재하며, 이는 남한 주민과 탈북민 사이의 계층을 가로지르는 구획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F임대아파트에 사는 탈북민들을 모두 통일초에 배정한다는 것은 결국 잘 사는 아파트에 사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분리해서 교육하겠다는 것이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통일초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F아파트는 떠있는 집이잖아요. (생략) 행복초등학교가 우리집 길 건너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F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거기 못 가고 통일초등학교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행복초등학교를 원했었거든요. 가까우니까. 큰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2011년) 그 또래 애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통일초등학교가) 학군도 안 좋고, 임대아파트(애들) 간다는 이유도 있고. 행복초와 서울초 중간에 끼여가지고 엄청 치인다고 해야 할까요. (생략) 저는 차라리 통일초를 없애버리라고 제기했어요. <사례 8>

값비싼 ‘건너편’ 아파트(일반 민영아파트)에 대한 탈북민들의 거리감은 매우 크다.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도 “몇 억은 되겠죠”라는 정도의 피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건너편 아파트를 욕망하지 않는 까닭은 그 아파트를 원치 않아서라기보다는, 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형편이기 때

문이다. 이들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또는 욕망이 달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좌절하는 삶 대신, 욕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한다.

한국사람들은 그렇게 한 대요. 애들이 너희 집은 어디냐, 전세냐, 월세냐, 내 집이냐, 빌라냐 뭐 그렇게 따진다는데 저는 상관은 없어요. 집이란 엉덩이만 붙이고 잘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해요. <사례 6>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같지 않잖아요. 저는 자본주의에서 사업이란 걸 하다 보니까 멋진 차, 멋진 집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 것(돈)이 있어야 돼. 우리한테는 그게 절박하지. 임대라는 말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현재 좋으려고 목돈을 들어서 집을 사면 당장은 좋죠. 나중에는요? <사례 7>

아파트를 매개로 서열화된 한국의 계층 인식은 아이들에게도 전해진다. 탈북민 아이들이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다녀오거나, 학교에서 공공연히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F임대아파트의 환경이 주변의 다른 아파트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큰아들이 친구로부터 “너희 집 몇 평이냐”는 이야기를 듣고 온 뒤 “우리 집 팔면 얼마야? 우리도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고, 엄마 아빠는 맨손으로 시작했고, 너희 장가도 보내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하고 (그래서 이사 갈 수 없어)”라고 설명해줬어요. <사례 8>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꾸 애만 낳다 보니까. 나름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열심히 맞벌이를 하면 지금보다 생활이 더 좋아지겠죠. 같이 벌면 적금도 좀 들 수 있고. 둘째가 그래요. 저런 아파트(건너편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그럼 마음이 좀 안 좋죠. (건너편 아파트는) 집이 커요. 창문이 완전 넓어요. 화려해요. 아파트가. [질문자: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못 가보고 둘째가 친구 따라서. 걔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창문을 보면..., 애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창문이 화려하게 몇 개씩 짝악! 저희는 창문이 하나거든요. <사례 6>

이들의 경제적 형편은 당장 ‘건너편’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꿈 꾸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임대아파트를 벗어나 장기전세 주택이나 집값이 싼 지역의 일반 민영아파트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아파트에서의 불쾌한 경험, 아파트를 매개로 이뤄지는 계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이들로 하여금 계층 상승의 욕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최근에 통일초에서 탈북민 세 가정이 임대에서 나가서 장기 전세나 좀 더 크고 좋은 아파트로 갔다고 해요. 임대아파트를 벗어나서 자가로 옮겨 가는 게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성공의 척도인 것 같아요. <사례 16>

탈북민 엄마들의 소원은 임대아파트에서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집에 사냐, 남들은 큰 집에서 사는데, 라고 계속해서 비교하듯 이야기해요. 그러면 임대아파트에서 나가는 게 소원이 돼요. <사례 17>

임대아파트에서 나가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F임대아파트를 검색

색해보니까 인식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영세민만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어느 중학교에 배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중학교에 가게 되는데 F임대아파트를 ‘거지촌’이라고 놀린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례 1>

4. 소결

통일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탈북민 학부모들은 통일구의 교육 환경에 대해 처음에는 대체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있는데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교육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학업을 위한 학부모의 노력과 열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이를 위해 해주고 싶은 것과 해줄 수 없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탈북민 학부모의 대부분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학령기를 보낸 탓에 공교육의 관심은 물론 가정 내에서도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학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인식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교육의 책임이 교사보다 부모에게 집중되는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남한 학부모들을 배움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한국사회의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교육방식을 습득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남한 학부모와 관계를 맺고 교류하기는 주저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녀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는 자녀를 둔 탈북민의 경우 학부모로서의 지위

가 한국사회로의 통합을 오히려 간섭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안타까운 것은, 자녀를 위해 북한 정체성을 감추려는 탈북민 학부모의 모습이 정작 자녀에게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면화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를 염려하는 부모의 시선은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전이되고, 어렴풋한 북한에 대한 기억을 부정적으로 내면화하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는 본인을 중국인으로 규정한다.

탈북민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을 때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 북한에서는 교육의 주된 담당자를 부모가 아닌 학교(또는 교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녀교육 문제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상당한 안정감을 준다. 특히 남북한의 교육체계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통일전담교육사는 탈북민 학부모의 고충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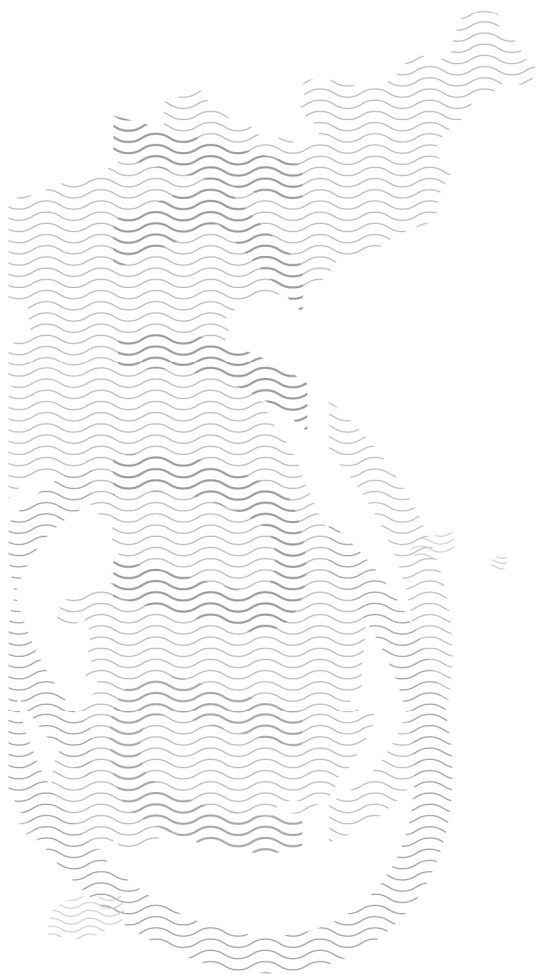
탈북민들은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남한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녀가 크게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진 않았다. 대신 자녀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희구했는데, 힘들었던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적 기억과 상실감으로 인해 평범하고 무난한 삶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떠나 '건너편'의 중산층 아파트로 이사해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욕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발견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탈북민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으며, 남한주민 과도 굳이 어울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한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탈북민들에게 생소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또한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자신이 탈북민임을 숨기고, 남한의 학부모를 관찰하며,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들은 한국사회의 교육열에 적응한다. 탈북민에 대한 배제는 한국사회가 이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방식이 아닌, 이들 스스로가 고립의 기제를 내면화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IV. 남한주민의 경험

김수경 (통일연구원)



1. ‘학군’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자본

가. 통일구의 교육열과 자녀교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인식과 교류를 논하기에 앞서, 통일동이라는 ‘학군’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동은 사교육이 매우 발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 형성된 학원이 밀집 지역에는 인접한 구(區)와 동(洞)은 물론 경기도 지역에서까지 학생들이 유입된다. 서울 내에서도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지역이다.

과거에는 학군에 대한 수요가 주로 명문 고등학교 위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⁶⁸⁾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입시에 좋은 성적을 내는 초·중학교 학군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면접에 응한 남한주민들 대부분도 타 지역에 거주하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할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지역의 학군을 보고 통일동에 이주한 경우다.

○○동에 살다가 통일동으로 5년 전 이사를 왔어요. 이 지역 아파트 값이 비싼데 이사를 온 건 오로지 학군 때문이었어요. 큰아이가 3학년 때,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를 왔는데, 전에 살던 곳이 학군이 별로여서 아이가 더 크기 전에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례 13>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통일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통일동으로 오기로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다들 “우와~” “오오~”

68) 김정민·이의준·박대권, “초·중·고등학교 수요가 서울시 구별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거주이주시기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통권 제65권 (2010), pp. 99~113.

그랬죠.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통일동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극성엄마’ 취급을 하더라고요. <사례 11>

원래는 ○○동에서 나고 자랐고 신혼살림도 거기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학군이 좋지 않고, 길 걷다보면 학생들이 막 담배 피우고 그렇거든요.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이 교육을 위해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통일동은 중산층이 열심히 자녀들 공부시키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사례 14>

이들은 교육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온 만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의 학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먼저 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학부모들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주로 전업주부 어머니들의 사교모임의 성격을 띠는 이 네트워크는 근본적으로 ‘자녀의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기저에 깔려 있다.

이 지역의 가장 평범한, 전형적인 학부모의 모습은 전업주부 엄마와 교육에 관심 많은 아빠예요. 전형적인 통일동의 풍경이에요.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은 모두 아침 10시에서 낮 2시 사이에 교류가 이뤄지죠. 약속도 꼭 그런 때만 잡더라고요. 여기에 참여하려면 맞벌이 엄마는 불가능해요. 탈북민들 대부분은 맞벌이라 이런 모임에 나오지 못하고요. 학부모 위원회도 있는데, 학교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학부모 중에 탈북민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맞벌이가 많아서 학교활동에 관여하기가 힘들어요. 제 아내는 거의 1주일에 한 번 씩 학교에 가요. 각종 활동이 많아요.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장소 선정하는 문제며 뭐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학부모 위원회

에서 결정해야 하거든요. <사례 14>

이 학교 엄마들은 기가 되게 세요. 학교 일에 엄청나게 관여를 많이 해요. 사립초도 아니고 유명인의 자제가 다니는 학교도 아닌 데, 엄마들이 학교에 진을 치고 있어요. 무슨 무슨 위원회 명목으로 학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요. 진짜 치맛바람이 너무 심해요. 학교에 아이보다 엄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슨 회의니 뭐니 해서 엄마들이 매일 들락거려요. 선생님들하고 기싸움하는 거 같아요. <사례 11>

그렇다고 해서 통일동의 자녀관리 문화를 단순히 이 지역 학부모의 ‘극성’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사례 15>에 따르면 통일동의 사교육과 자녀관리는 이 지역의 오래된 전통이자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할아버지 세대(1세대)가 아버지 세대(2세대)를 그렇게 교육시켰고, 아버지 세대가 자녀(3세대)를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시킴으로써 교육과 계층이 대물림되는 공간이 바로 통일동인 셈이다.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부모님의 부모님 때부터 전문직이 많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익숙한 풍경이고, (학부모) 본인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 본인 자식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과하게 미친 듯이 교육시킨다거나, 엄마들이 극성을 떨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교육과 자녀 관리는 이 지역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지역적 문화이고, 아이들도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알고 있어요. <사례 15>

세대에 걸쳐 전승된 통일동의 교육문화는 아버지의 역할에서 잘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교육문화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전업주부 어머니의 역할이지만,⁶⁹⁾ 통일동의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아

버지의 관심과 역할이 어머니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용한다. 통일초에 자녀를 보내는 30~40대 아버지들 역시 어렸을 때 지금의 자녀들 처럼 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 동네 아빠들이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제 남편도 관심이 많고요. 대부분 전문직이고, 학원 라이딩(운전)을 다 아빠가 해줘요. 저희 아이가 과학학원을 다니는데 학부모 모임에 아빠들이 올 때도 있어요. 과학학원에서 보는 교재를 아빠가 먼저 보고 아이 예습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학부모 참관수업을 가봐도 아빠들이 많이 와요. 아빠들 자체가 사교육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라, 자기 자식들에게 더 시키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사례 15>

한국사회에서 ‘학군’은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거주지 선택이 이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결정하고 자녀의 학군을 결정한다. 학군은 결국 주변에 어떤 학교 친구가 있을지 영향을 미치고, 학교 친구는 자연스럽게 자녀의 성격, 태도, 학업성취도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⁷⁰⁾ 즉, 한국사회에서 학군은 자녀의 사회적 자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학자마다 여러 가지 해석과 정의가 존재하나 근본적으로는 개인이 특정 사회적 구조 및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 혹은 그러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⁷¹⁾ 결국, 좋은 학군으로의 이주는 부모의 사회적 자

69) 김미숙·상종열, “중산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학부모들의 자녀교육문화: 분당구 사례,” p. 10.

70) 오선정,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7), p. 2.

본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지역주민이 서로 잘 알며, 유해환경이 적고, 부모가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⁷²⁾

그러나 탈북민은 통일구 주민이 공유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학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남한 학부모들은 통일동에 이주해 온 이후 자녀가 진학하게 될 초등학교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뒤늦게 접하고 고민에 빠지게 된 경우가 많았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야 할 때쯤 탈북민 자녀가 많이 다니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어요. 맨 처음엔 통일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곳이더라고요. 입학하고 보니 학생 중 절반은 어딘가 다르고 뭔가가 없었어요. 다문화 가정이거나, 탈북민 가정이거나,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왜 학교가 물이 이렇게?' 라고 생각했어요. <사례 11>

아는 언니가 이 근처에 살아요. 내가 학군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이 지역을 추천하더라고요. ○○아파트가 이 지역 집값에 비해 싼 편이기에 계약을 했죠.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봤더니 통일초 학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초등학교 학군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에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다 결정을 하고 났더니 통일초가 그런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사례 13>

“그런 곳”, “그런 학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주민들

71) Alejandro Portes,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4, no. 1 (1998), pp. 1~24.

72) 홍영란 외,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p. 35.

은 탈북민을 비롯한 임대아파트 주민의 자녀가 다수 재학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처음에는 불편한 감정이 들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이 수업 분위기를 망쳐 ‘공부 안 하는 학교’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학교에 탈북민 자녀가 많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살짝 걱정은 됐어요. 일단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말투도 험하고 성격도 완전 센 그런 아이들일까봐 걱정이 됐죠. 학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공부 안하는 분위기로 흐르면 어찌지? 주변 사람들이 통일초에 대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공부 안 하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알려지면 누가 이 지역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다 이사 나가지. 그런데 막상 입학 을 시켜놓고 보니 탈북민이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사례 13>

나. ‘탈북민 학교’라는 낙인

학군에 대한 기대를 안고 통일동에 이사 온 남한주민들은 통일초의 설립 배경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1996년에 설립된 통일초는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인 F아파트가 1995년 준공된 직후에 세워졌다. 남한주민들은 통일초가 F임대아파트 아이들이 흡수할 학교를 따로 만들어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통일초가 만들어진 이유가, 서울초나 행복초 다니는 엄마들이 F아파트 애들을 흡수할 학교를 따로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제 사실인 것도 같은 게, 서울초나 행복초에는 그런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말은 아니구나, 진짜로 주변 학교 엄마들이 요구한 게 사실이구나, 싶었

어요. 정말 뜬금없는 자리에 통일초가 세워진 걸 보면 사실인 거 같아요. <사례 11>

이 지역이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초등학교 3개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 지역에 통일초가 생기기 전에는 다들 서울 초나 행복초로 배정이 되었는데, 통일초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애들이 옮기게 됐죠.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고 시끄러워졌던 거 같아요. F아파트 생기고 나서 그쪽 아이들 때문에 통일초가 생긴 게 맞는 거 같아요. <사례 13>

학교가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일반아파트 살면서 행복초로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이 행복초에 자꾸 임대아파트 애들이 배정이 되니까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누가 잘 될지 모르는 건데... <사례 12>

이들의 발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통일동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통일초에 대한 일종의 ‘낙인’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통일초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산 이웃, 특히 자녀를 이 지역에서 교육시켜 대학을 보낸 50~60대 이웃으로부터 통일초에 보내지 말라는 조언을 듣는다. 이 이웃들은 이 지역에서 통일초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대형 평수가 많아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분들은 자식들을 다 통일동에서 키웠고 손자들도 여기서 학교 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이가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오갈 때마다 통일초 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통일초 배정인데) 절반 이

상은 위장전입해서 서울초, 행복초, ○○초로 보내요. <사례 15>

이러한 ‘낙인’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탈북민에 대한 것인지는 분명치는 않다. 그러나 통일초에 유명인이 방문하거나 기부를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통일초가 여러 번 언론에 노출되었고, 그때마다 매번 언론이 통일초를 ‘탈북민이 많이 다니는 학교’로 묘사하자 통일초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만이 증가했다.

엄마들이 언론에 불만이 많죠. 그냥 이 지역에서만 알던 얘기를 괜히 기사로 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알게 만드냐고. “왜 그런 거(이 학교에 탈북민이 많은 것)를 이슈화시키냐”, “엄마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례 11>

정작 우리들은 아무 불만 없이 잘 학교 다니는데, 밖에서 떠드는 소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잘 다니는데 자꾸 기사에 나고 하니까 집에 와서 물어요. “엄마, 우리 학교에 탈북민이 많이 있다는데?” 이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 서울초나 행복초 엄마들이 괜히 더 말을 만들어요. <사례 13>

통일초에 부여된 이러한 낙인은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인근에서 통일초는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다니는 곳, 탈북민이 다니는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아이들이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초나 행복초 출신 학생들에 비해 통일초 출신 학생들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통일초는 공부 못하는 학교’라는 편견이 더 굳어진다고 한다.

통일초에는 임대아파트 애들이 다 모여 있지만, 중학교를 배정

받으면 다 쉬이게 돼요. 중학교에서도 통일초 출신들에 대해 차별이 있다고 들었어요. “북한에서 왔냐”고 놀린다든가… 주변에 중학교 보내는 엄마들이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그런 놀림 안 받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이 동네는 공부 잘하면 무시 못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사례 13>

통일초 학부모들은 ‘탈북민이 많은 학교’라는 언급 자체를 부정적인 낙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지우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의 좋은 점을 알리는 홍보글을 올리기도 한다. 초등학교에 대한 정보는 주로 지역 맘카페나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 공유되는데 통일초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선은 온라인 공간에서 증폭되곤 한다.

이 지역 엄마들, 어르신들, 모두 왜 그런 학교를 보내냐고 그런 말을 해요. 다들 통일초가 예전에 어땠었지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시설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다 행복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통일초는 지원금은 많은데 학생 수는 적어서 아이들 시설에 엄청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자꾸 안 좋은 이야기가 돌아다니니까 속상해서…, 일부러 통일초의 장점에 대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통일초에 대해 묻는 글이 있으면 좋은 댓글을 달곤 해요. <사례 13>

통일초는 2015년 혁신초등학교로 전환되었다. 혁신초등학교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이 체험과 실습 위주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특징이다. 혁신초로 지정되면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활동을 위한 교구와 장비들도 구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혁신초는 소위 ‘공부 안

시키는 학교'라는 편견 때문에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⁷³⁾

통일초 학부모들은 혁신학교 지정 이후 학교 시설이 이웃 학교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졌을 뿐 아니라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통일초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혁신학교라 그런지 방과후 프로그램도 좋고 돌봄교실도 잘 되어 있어요. 돌봄교실이 잘 되어 있어서 맞벌이들이 선호해요. 학교에 책이 엄청 많아요. 미술실, 과학실, 특별활동을 위한 교실도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국악밴드, 음악밴드, 각종 동아리 활동도 잘 되어 있고..., 졸업 전까지 한 가지 악기는 다룰 수 있도록 1인1기 프로그램도 되어 있어요. 통일초에 그래도 만족하고 아이를 보내는 이유는 시설 좋고 방과후 프로그램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좋아서 보내는 거예요. 만약 그게 사라진다면 여기 엄마들(남한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례 11>

(통일초는) 시설이 엄청 좋아요.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적고, 시설도 좋고, 서울에서는 최고일 거예요. 과학실험을 할 때도 열 명씩 달라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 2인 1조로 하고..., 도서관도 좋고..., 교실(컴퓨터실, 미술실, 가사실, 과학실 등 특별활동을 위해 특화된 교실)이 워낙 많아서 학생들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수업해요. (생략)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통일초를 폐교시키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학년 전체가 다 합쳐봐야 40명? 이랬어요. 제 생각엔 교장선생님이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혁신학교로 바꾸면서 시설 같은 것을 엄청 좋게 만들었고, 그 뒤부터는 소신 있게 통

73) “혁신학교 10년...교육의 미래인가, 보여주기식 제도인가,” 『서울신문』, 2019.1.8.,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9026006> (검색일: 2019.9.15.).

일초에 보내는 부모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례 14>

<사례 14>에 따르면 통일초에 보내는 것은 학부모들의 “소신”이 필요한 일이다. 그만큼 통일초에 대한 낙인 때문에 탈북민뿐만 아니라 남한주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14>는 통일초가 “더 이상 예전의 통일초가 아니며” “공부에 관심 있어서 이사 온 사람들이 보내는 학교”로 인식되길 바란다. 그의 바람은 통일초가 “일반 아파트 아이들이 주류가 되는”학교가 되는 것이다.

나의 선택(통일초를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학부모 모임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통일초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예전의 통일초는 F아파트 애들이 80~90%였다면 이제는 일반 아파트 아이들이 주류가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생략) 저는 이 학교가 임대아파트 주민이나 탈북민 주민이 주류가 아니라, 공부에 관심 있어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요. <사례 14>

2. 남한 학부모의 사회적 관계

가. ‘자녀관리’의 문화와 학부모 모임

통일초의 학부모 모임은 크게 두 가지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첫째, 이 지역에 살며 같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의 엄마들끼리 맺어진 인간관계가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경우다. 아이의 취학 전부터 이 지역에 살던 학부모들은 이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친분을 쌓은 뒤 아이가 같은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

크는 자녀의 교우관계와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같은 아파트에 살며 자녀를 같은 초등학교에 보내는 경우다. 이들은 등하교 길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하교 후에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녀들을 놀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쌓는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학업 관련 정보들이 교류된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엄마들의 인간관계가 이뤄져요. F아파트 엄마들은 F아파트 엄마들끼리..., O아파트 엄마들은 O아파트들끼리..., 아무래도 가까이 사니까 오다가다 자주 마주치고 놀이터에서 만나기도 하고..., 일부러 선을 긋는다거나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려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여기에서 학원 정보도 서로 나누고, 주말에 아이들 같이 놀게 하자고 이야기도 하고..., 특히 전업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죠. 본인의 인간관계와 자녀의 인간관계가 다 얽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탈북민들은 다른 아파트에 사니까 마주칠 일 자체가 거의 없어요. <사례 11>

자녀를 매개로 한 엄마들의 모임은 이른바 중산층 학부모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자녀관리’ 문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산층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중산층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 욕망과 습속이 유사한 사람들로 모임을 제한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배제한다.⁷⁴⁾ 대표적인 중산층 거주 지역인 통일동의 경우 탈북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동 중산층의 ‘자녀관리’ 문화에서 탈북민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통일동은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학부모들이 많은,

74) 김미숙·상종열, “중산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학부모들의 자녀교육문화: 분당구 사례,” p. 1.

한 마디로 교육열이 엄청난 곳이에요. 동네 전체가 교육,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동시에 자녀교육을 위한 각종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커뮤니티 활동에 탈북민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학기 초에 이런저런 모임이 만들어질 때 초대하긴 하지만 한번도 응한 적이 없어요. 교육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경제력도 차이가 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소외되는 게 사실이에요. <사례 14>

‘자녀관리’의 문화는 탈북민 학부모와 남한주민 학부모 간의 소통과 교류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사회에서 학부모 간의 대화에서 기대되는 ‘문법’을 탈북민에게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한사회에서 학부모 간의 만남은 근본적으로 자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이 대화의 주를 이루게 마련이다.

학부모끼리 만나는 건 친구가 되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때문에 만나는 거죠. 맨 처음엔 “우리 아이가 덕의 자녀와 잘 지낸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자연스럽게 학교 얘기로 넘어가죠. 담임선생님 이야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요즘 어떻게더라... 마지막 단계에 가면 학원은 어디 다니는지, 무슨 학원이 좋은지,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만난 탈북민 부모는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례 14>

남한의 ‘자녀관리’ 문화를 알지 못하는 탈북민들은 남한의 학부모를 만났을 때 자신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 탈북 이야기 등을 대화의 주제로 내어놓는데, 이러한 내용이 생경한 남한 학부모는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이는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

아들이 학교에서 탈북민 가정의 아이와 짝이 됐는데 어느 날 짝을 집으로 데려왔더라고요. 원래 아이 친구가 집에 놀러온다는 것은 사전에 엄마들끼리 이야기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들이 즉흥적으로 짝을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짝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자기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호기심 반, 측은지심 반으로 가족이 다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아이가 이 지역에 살면 어쨌거나 계속 탈북민 자녀들과 함께 지내게 될 텐데, 아이가 앞으로도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만났는데, 자기가 브로커에게 얼마를 주고 압록강을 건넜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왔고, 북한에 있을 때 보위부원을 맨주먹으로 때려눕혔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화의 결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부터 허풍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한 번 만나고 다시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사례 14>

‘자녀관리’의 문화와 문법은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탈북민과 남한주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발생했을 때 남한 학부모끼리는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에 대해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지만 탈북민 부모에게는 이러한 화해의 문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한 아이나 북한 아이나 노는 모양새는 다 똑같아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남한 아이끼리 싸워서 누가 다치거나 하면 상대방 부모에게 전화가 오고 ‘많이 다쳤냐’ ‘조심시키겠다’ ‘병원비는 내가 내겠다’ 등등 사후관리가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탈북민 아이에게 얼굴을 긁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

니, 뭐 이까짓 일로 연락을 했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사후관리
가 안 되는 부모의 아이와 놀다가 다치면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
에... 결국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조심시킬 수밖에 없더라
고요. <사례 14>

탈북민 학부모는 자녀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쁜 의도
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학부모의 오해를 사기도 한다. 말이라
는 것은 그 내용만큼이나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과 맥락이 중요한데,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
서 말을 주고받다가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매우
미묘한 것이어서 학습이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작년에 그 엄마(탈북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
끼리 문자를 하면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저 ○○
엄마예요”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이분
은 아무 인사도 없이 대뜸 “당신 아이가 우리 아이 핸드폰을 가져
갔으니 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했고,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보니 아니라
고. (생략)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전화해도 될까요”라고 문자
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설명을 했어요. 막상 설명을 하니 수궁을
하고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문자를
보고 엄청 기분 나빠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
냐고. <사례 15>

나. 탈북민 학부모에 대한 인식

남한주민과 탈북민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기회는 학년
초 학부모 총회나 공개수업이 있을 때다. 이날은 학부모와 담임교사

가 만나 1년간의 학사일정과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날이다. 이날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같은 반 학부모들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며, 대개는 반장 어머니나 학교 일에 적극적인 어머니가 인터넷 채팅방(‘단톡방’)을 개설해 같은 반 학부모를 초대한다. 학부모 간의 교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뤄지지만 탈북민은 대부분의 경우 말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학급 엄마들끼리의 단톡방이 있는데 탈북민들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라고 가볍게 인사만 하든가, 반 대표 어머니가 정보를 공지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정도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든가, 뭘 묻는다든가, 하지 않아요. 오프라인 모임에는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학부모 총회나 공개수업에도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딱히 탈북민 엄마들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굳이 다가오지 않고, 저희도 조심스러우니까 다가가지 않고…, 그런 거죠. <사례 14>

탈북민들은 여러 사정 때문에 학부모 만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지만, 이는 남한 학부모들에게 ‘탈북민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통일동 학군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 학군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내부자(insider)’가 되어야 한다.⁷⁵⁾ 남한 학부모는 학부모 모임이나 학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탈북민에 대해 ‘학군이

75) 부르디외(Bourdieu)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자원(resource)과 접근(access)이 동시에 필요하다. 자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없으며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적 자본이 완성되는 것이다. 자원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내부자(insider)가 되어야 하며, 내부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Pierre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of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 J. E. Richardson (New York: Greeword Press, 1986), pp. 241~258.

라는 자원을 공유하는 내부자가 되는 것에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게 된다.

탈북민은 교육에 대해 바라보는 방향과 지점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아이 1명당 사교육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동네예요. 그런데 탈북민 부모들은 일단 이 동네가 어떤 동네(교육열 높고 강한 지역)인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전혀 없고, 학교에서 시키는 거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대학을 잘 보내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사교육을 시킬 능력이 안 돼서 그런가? 그래서 아예 관심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례 14>

남한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큰 관심이 없는 탈북민에게 굳이 친하게 지내야 할 동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러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탈북민들을 자신의 삶의 영역 안으로 초대하는 것도 반기지 않는 것이다.

공개수업 가면 분명 그중에 탈북민 엄마가 있겠죠.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일 것 같다’고 짐작되는 사람이 있긴 해요. 하지만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들도 말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아이를 통일초에 보냈지만 아이 친구 중에 누가 탈북민 아이인지, 누구 엄마가 탈북민인지 전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사례 13>

사람들이 대놓고 “쟤가 탈북민이래”, “쟤가 중국 아이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아이와 부딪치는 일이 없다면 누가 탈북민인지 아닌지 큰 관심 없어요. (생략) 다들 자기 아이 교육만도 너무 바쁘고 거기에 몰입해 있어서 탈북민 아이들이 누군지 들여다

볼 여력도 없어요. <사례 15>

정작 아이들은 친구들의 배경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에 남한 학부모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상대방 아이가 탈북민인지, 다문화 가정의 아이인지, 한부모 가정의 아이인지 등에 대해 개의치 않으며, 이를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어른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아이들은 누가 탈북민 자녀인지, 복지수급자인지, 일반 아동인지,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써요. 고학년쯤 되면 좀 따로 노는 성향이 보이기는 하는데, 적어도 저학년 때는 상관없이 놀아요. 신경 쓰는 건 엄마들이죠. 탈북민 엄마들은 왕따 당할까 걱정하고, 일반 엄마(남한 엄마)들은 혹시나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고. <사례 16>

애들은 오로지 게임하는 거에나 관심 있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어른들이 괜히 더 관심갖고 놀림당할까 걱정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아들이랑 ○○이는 1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지금 5학년인데, 나는 ○○이네가 탈북민인 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생략)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몰라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애들은 별 것 아닌 일로도 놀리고 못되게 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사례 12>

그러나 어른들의 시선은 아이들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친구의 부모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부모의 염려를 살까 걱정이 되어 일부러 그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기도 한다. <사례 11>은 자신의 자녀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탈북민의 자녀라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다. 아이가 탈북민 친

구와 친하다는 사실을 부모가 문제삼을까봐 일부러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아들이 ○○이랑 오랫동안 친한 친구데, 저는 ○○이가 탈북민 자녀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연히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얼떨결에 “○○이네 북한에서 왔잖아”라고 말을 해서 알았어요. 왜 이야기 안 했냐고 하니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상하게 생각해?”라고 물었더니 “어른들은 북에서 왔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에게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이의 시선에도 탈북민에 대한 어른들의 편견이 보이는 거 같아 씁쓸했어요. <사례 11>

<사례 11>은 이후 탈북민 부모와도 가깝게 지내며 자주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다. 서로의 아이 친구를 자주 집으로 불러 놀게 하고 전화도 자주 하면서 부모와도 친해진 경우다. 탈북민은 대개 남한주민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친해질 계기가 없었지만 탈북민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에는 의외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탈북민도 다 사람 나름인 거 같아요. ○○이 엄마(탈북민)와는 서로 집에도 자주 오가고 밥도 같이 먹고 안부도 자주 묻는 사이예요. 아이 키우면서 부탁할 일이 생기면 서로 부탁도 하고요. ○○이 엄마는 먼저 다가오는 스타일이예요. 보통의 탈북민 엄마들은 일반 엄마들이랑 섞이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하는데 ○○이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보자, 만나자,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스타일이예요. <사례 11>

일부 남한 학부모의 경우 탈북민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는 <사례 15>는 자신의 자녀가 해외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것을 매우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다. 본인도 탈북민 학생들의 적응을 도와주고 싶지만, 탈북민도 학교도 탈북민의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는 분위기라 누가 탈북민 자녀인지 알 수 없어 도와주려야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통일초를 보내도 탈북민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탈북민이 많이 다닌다는 이야기를 외부에서 많이 듣는데, 정작 통일초 안에서는 탈북민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자기가 탈북민인 것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면 열린 마음으로 도와줄 거 같은데 탈북민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남한 엄마들)도 아이들 학교생활이 궁금한데 그들이라고 왜 안 그렇겠어요. <사례 15>

통일초가 탈북민이 많이 다니는 학교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통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모두가 “쉬쉬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통일초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며,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이 통일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나라에서 통일을 원하는 것이라면, 학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커피드립 강좌’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차라리 그런 거보다 탈북민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탈북민이 많은 건 어쨌든 사실이니까요. 팩트는 팩트니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지, 그걸 인정 안 하면 (탈북민 통합이) 출발이 안 돼요. ○○초 애들은 탈북민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난 (통일초에 탈

북민이 있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탈북민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알면서 자라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탈북민도 스스로를 그냥 편하게 오픈하면 좋을 거 같아요. <사례 15>

탈북민이 (통일초에)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난 통일초가 탈북민을 위한 학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필요한 일이잖아요. 어딘가부터는 시작을 해야 하니까. 쉬이면 쉬이는 대로 살아야지. (혹시 탈북민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조치를 하면 되지 (무조건 탈북민을 거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른들끼리의 문제예요. (통일초에 탈북민이 많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거 자체가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학교가 (남북 통합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 11>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이상적일 뿐, 통일초가 공개적으로 탈북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제일 큰 이유는 부동산이다. 통일초에 대한 낙인이 이미 통일초 배정 아파트의 집값을 인근 시세보다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초가 탈북민을 위한 학교임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경우 아파트 시세 하락을 걱정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남한 학부모와 아이들, 탈북민 학부모와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한국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 두 집단이 마주칠 일은 많지 않다. 심지어 아이들마저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부러 아이들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남한 아이들과 탈북민 아이들을 분리시킨다는 것이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 통일동에는 이른바 “사교육의 시간”이 시작된다. 수많은 학원 버스들이 학생들을 실어 나르며 아이들을 사교육의 네트워크

속으로 안내한다. 학원이라는 공간은 임대아파트 아이들이나 탈북민이 부재한, 통일동 본연의 학구열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남한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탈북민 아이들을 따돌리거나 차별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어차피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아요. 학교 시간이 되면 15~45인승 버스가 쪽 기다려서 아이들을 태우고 학원 갔다 오는 게 이 지역의 일상적인 풍경이에요. 탈북민을 일부러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교육의 시간’이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탈북민 아이들이 학원에 열심히 다니지 않는 다음에야 한국 애들이랑 탈북민 아이들이랑 어울릴 일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사례 14>

3. 부동산과 계층인식

가. 학군과 아파트의 서열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란 물리적 주거 공간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아파트는 직업이나 학력, 연령 등이 비슷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집합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아파트는 중산층의 대표적인 거주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정부는 경제력 있는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아파트의 공급 및 확산을 추진해왔다. 또한 아파트는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가격상승률이 높아 자산 축적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 중산층의 대표적인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⁷⁶⁾

76) 천현숙, “대도시 아파트 주거단지의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제38집 제4호 (2004), pp. 215~247.

통일동 일대의 아파트들은 중산층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평이 난 곳이다. 우선 아파트 가격이 고가에 형성되어 있어 일정 경제 수준 이하의 사람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통일동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2,851만 원으로 전국 평균(1,155만 원)과 서울시 평균(2,673만 원)을 웃돈다.⁷⁷⁾ 주목할 것은 통일초 배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주변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이다. 통일초에 배정되는 5개 아파트의 평당 매매 가격은 평균 2,351만 원으로 서울초(3,292만 원), 행복초(3,387만 원) 배정 아파트 가격보다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저렴하다.⁷⁸⁾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한다. 첫 번째는 서울초와 행복초 배정 아파트들은 대부분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가격 상승의 기대심리가 매매가에 반영되어 있다. 두 번째는 통일초 배정 아파트는 통일초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피로 매매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아파트와 G아파트는 골목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아파트로 각각 2000년, 2001년에 지어졌다. 두 아파트는 위치도 연식도 비슷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난다. B아파트는 평당 매매 가격이 2,090만 원이고 G아파트는 2,602만 원이다. 32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매가가 평균 1억 6,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 두 아파트의 매매가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통일초 배정 여부 때문이라는 것이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견이다.

B아파트는 통일초 배정이고 G아파트는 서울초 배정인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거든요. 오히려 B아파트가 세대수도 많고 대

77) KB부동산 통계정보, 2018.12. 참조. <www.onland.kbstar.com/quics?page=C059743> (검색일: 2019.9.15.).

78) 각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land.naver.com>에 나온 호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검색일: 2019.6.1.).

단지라 G아파트보다 쌀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B아파트는 리모델링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호재가 많아요. 그런데도 B아파트가 G아파트보다 1억 이상 싸요. 왜 그렇겠어요. 초등학교 때문이죠. 아무래도 통일초에는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꺼려지는 부분이 있죠.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닌데..., 이왕이면 서울초 배정 아파트를 사려고들 하죠.⁷⁹⁾

이사를 때부터 이 아파트가 통일초 배정인 걸 알고 있었어요. 인근에 다른 초등학교 아파트랑 비교하면 1억 정도 싸요. 부동산 가면 다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통일초 배정이라 1억 마이너스.” 다른 아파트로 가려다가, 이제는 탈북민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왔어요. (생략) 어차피 이 동네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이유로 모이는 동네예요. 초등학교 때는 좀 쉬엄쉬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사례 14>

교육환경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지역 내 학원 수, 고교종합평가 순위,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진학률, 우수학군 이주 수요 등은 주택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⁸⁰⁾ 최근에는 우수한 교육환경의 수요가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⁸¹⁾ 즉, 초등학교

79) 서울시 통일구 통일동 ○○부동산 중개업자 인터뷰 (2019.4.14.).

80) 정수연, “교육요인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7권 제4호 (2012), pp. 193~204; 김경민·이양원, “사교육 시장 및 교육 성과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04년 아파트가격 상승기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55권 (2007), pp. 239~252; 임재만, “범죄율과 교육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헤도닉모형과 위계선형모형의 비교연구,” 『주택연구』, 제16권 제33호 (2008), pp. 47~64; 전경구, “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분석: 위계선형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4권 제3호 (2012), pp. 1~24.

81) 김경민·이의준·박대권, “초·중·고등학교 수요가 서울시 구별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거주 이주시기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65권 (2010), pp. 99~113.

군이 아파트 값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동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초, 행복초 등 통일초가 아닌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대단지 아파트 △통일초에 배정되는 아파트 △임대아파트가 하나의 서열구조를 이루고 있다. 서울초나 행복초에 배정되는 대단지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들로 주차가 불편하고 외관과 내부 모두 매우 낡았다. 그러나 통일초를 기피하는 학부모들의 실거주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월등히 높다. 반면 통일초에 배정되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새 것이고 주차도 편리하며 생활환경이 더 쾌적하지만 통일초 배정이라는 이유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통일초 배정 아파트가 인근 집값보다 싸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아파트를 통일구 학군의 진입 지점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좋은 학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통일초 배정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싼 집값으로 통일구 학군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탈북민에 대한 더욱 강한 부정적 편견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통일구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기보다는, 통일구 학군의 이점을 찾아서 새롭게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자녀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만큼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더 강하고, 이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갖기 쉽다.

바로 옆에서 사교육 열풍을 보다 보니,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하지만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 그런지 학교를 들들 볶는 거 같아요. 오후 네다섯 시쯤 되면 여러 대의 관광버스가 아이들을 태워서 밤 9시, 10시쯤 다시 집에 데려다줘요. 이런 걸 매일 보니

엄마들이 조바심이 나는 거 같아요. 서울초나 행복초에는 이미 (학군 내 우수한 아이들과) 섞여서 함께 다니는데 통일초는 임대아파트 애들 비율이 많으니까 경쟁에서 낙오될까봐 엄마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해요. <사례 11>

나. 위장전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통일초와 F임대아파트는 중산층으로 구성된 통일구 학군에서 마치 섬처럼 고립된 존재다. 통일초가 학군의 명성과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이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학교에 배정되지 않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해졌다. 위장전입은 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통일초 배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달 일정 액수를 지불하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 아파트에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시킨다.

3년 전만 해도 위장전입을 엄청 많이 했어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다가 아이만, 또는 엄마랑 아이만 주소를 위장전입 시켜주고 한 달에 30만 원씩 받고 그랬어요. 서울초나 행복초로 배정 받게 해줬죠. <사례 14>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끼리 공공연히 정보가 교류돼요. 놀이터 같은 데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죠.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요. 아는 엄마, 시부모, 친정부모 등등 어떻게든 서울초나 행복초로 배정되는 아파트에 아이 이름을 올리죠. 학교 배정받기 전에 엄마들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러 엄청 많이 몰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례 11>

위장전입으로 통일초의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통일초를 폐

교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해당 교육지원청은 주민센터, 통일초, 서울초, 행복초의 협조를 얻어 철저한 위장전입 조사에 나섰다. 매년 학기 초에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아이가 거주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될 경우 원래 거주지에 맞게 초등학교를 다시 배정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아예 옆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거나, 초등학교를 배정받는 시기에만 잠시 옆 아파트로 월세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통일초 배정을 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위장전입에 대한 조사가 철저해지면서 아예 학군 배정받는 기간에 한 몇 달만 아니면 1년만 통일초 바깥 지역으로 월세를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서울초 배정받으면 다시 원래 집으로 이사 들어오고.
<사례 13>

아는 집 엄마가 나랑 같이 ○○아파트(통일초 배정)에 살았는데 XX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는 △△초 배정되는 아파트예요. 서울초 배정 아파트에 가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갔대요. 원래는 위장전입을 할까 했는데 요즘 위장전입 조사를 철저히 한다는 소리에 무서워서 아예 XX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11>

위장전입은 그 자체로도 위법행위이지만, 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초나 행복초는 통일초를 피해 위장전입을 해온 학생들 때문에 정원이 너무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반 아이를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울초와 행복초 배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비싼 주거비를 내고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해온 사람들에 대한 저항감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아는 엄마가 아이를 (위장전입으로) ○○초에 보냈는데 그 학교 엄마들로부터 신고를 당했어요.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해서 결국은 그냥 남기로 하긴 했는데..., 대신 ○○초 배정 아파트에 월세를 얻어서 아이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통일초 보낼 걸, 후회하더라고요. (생략) 이 지역은 위장전입도 많이 하지만 위장전입에 대한 반감도 엄청 커요. 위장전입한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어요. 학군 때문에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로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고생스러운데도 아이를 서울초에 보내기 위해 ‘모테크’를 하는데, 통일초 학군의 새 아파트 살면서 위장전입시킨 거에 대해 분개하는 거죠.

〈사례 15〉

이 지역에는 최근 새 아파트(E아파트)가 들어섰다. 최근 5년 내 통일동에 들어선 몇 안 되는 신축 아파트 중 하나로, 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월등히 높다.⁸²⁾ 이 아파트는 통일초 배정 학군에 해당되는데 현재 입주민들은 서울초 배정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초가 물리적으로 더 가깝고, 통일초로 가는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통일초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대놓고 통일초가 싫다고 할 수는 없으니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근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서울초에 아이를 보내지만, 멀리서 이 지역에 새로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사람들은 뭇 모르고 아이들을 통일초에 순순히 보냈다가 멘봉에 빠져요. 우리 아이 반에도 E아파트 사는 아이가 새로 왔다는데 그 친구네가 잘 버

82) 2019년 10월 현재 E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호가)은 3,852만 원으로, 서울초 배정인 G아파트는 2,602만 원, 통일초 배정인 B아파트는 2,152만 원이다. 이 세 아파트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land.naver.com> (검색일 2019.10.10.).

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해요. <사례 11>

E아파트 입주민 단체에서 시위도 하고 민원도 넣고 한다더라고요. 집 바로 앞이 서울초인데 멀리 통일초로 다녀야 하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은 아파트 가격 때문인 거죠. 임대아파트 아이들과 섞이는 통일초 배정 아파트는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사례 13>

E아파트 학부모들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했다. 법원은 서울초와 통일초의 통학 거리가 약 40m에 불과하고 통일초 통학로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 보행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통일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16명이지만 서울초는 30명이 넘기 때문에 학교 간 적정 학급수 유지를 위해서도 통일초 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4. 소결

남한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통일동에 이주해왔으며, 적극적인 학부모 간 교류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자녀교육을 매개로 한 학부모 간 모임은 통일동 학군의 ‘자녀관리’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이 문화적 풍경 안에 탈북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남한 학부모들은 탈북민 학부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가까이 하려 들지도 않았는데, ‘자녀관리’의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탈북민 학부모와의 괴리감이 크게 작용했다. 남한 학부모들은 탈북민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교육열이 높은

통일동 학군에서 자녀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굳이 가까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정작 아이들은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서로 잘 어울려 지냈지만, 이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학교를 마친 뒤 방과후 시간에는 탈북민 학생과 남한 학생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현상을 보였다. 학교를 마치면 남한 학생들은 사설 학원으로 이동하고 탈북민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방과후 수업을 듣거나 돌봄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른바 ‘사교육의 시간’은 남한 학생들을 통일동 본연의 교육열이 지배하는 학원가로 안내하며, 이 공간은 탈북 학생들이 부재한 공간이다.

탈북민에 대한 기피와 배제는 임대아파트라는 공간효과를 통해 더욱 증폭된다. 이 지역 탈북민의 대다수는 F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F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이 모두 통일초에 배정되면서 통일초를 배정받는 다른 아파트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골목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초등학교 배정 학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는 남한 학부모의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뉜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통일초 배정 아파트로 이주해 옴으로써 통일구 학군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군의 이점을 찾아 이주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탈북민이 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경우 부정적 편견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위장전입을 통해 통일초 배정을 피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위장전입은 흔하게 발생하는 일로, 이를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매우 심한 편이다. 자녀를 통일초가 아닌, 서울초나 행복초에 보내기 위해 비싼 주거비를 감수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아파트에 살면서 위장전입을 해오

는 학부모들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이상의 발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한주민이 탈북민과 적극적인 관계 형성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단지 이질적 집단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열이 지배하는 통일동 공간에서 남한 학부모들은 ‘자녀관리’의 문화, 나아가 중산층의 문화를 공유하는가의 여부가 관계 형성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분리는 훨씬 더 은근하고 자연스럽게 두 집단을 갈라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 통합을 위한 전략은 좀 더 치밀하고 분석적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탈북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의할만한 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이들을 지역사회에 온전히 정착하게 만들기 어렵다. 탈북민이 겪는 배제는 단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열, 중산층 문화, 임대아파트 거주 등 다양한 차원의 비가시적인 배제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V. 통일초등학교: 갈등과 이해의 공간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1. ‘역지대’로서의 통일초등학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초등학교를 둘러싼 남한주민과 탈북민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관찰하는 정도 이상의 관계는 맺지 않고 있었다. 탈북민은 남한주민을 관찰하며 남한의 교육문화를 습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적극적인 관계 맺기에 나서지 않으며, 남한 학부모 역시 탈북민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굳이 가까이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서로를 경계하고 조심하는 이 공간의 긴장이 다소나마 이완되는 것은 통일초등학교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서다.

통일초등학교는 주변의 다른 초등학교와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1996년 학교가 건립된 이후 학교의 입지 여건으로 인해 여러 우려와 갈등에 노출되었으나 최근에는 학교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자녀들을 학교가 나서 돌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선 통일초등학교는 서울형혁신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마을결합형 모델학교, 평생교육 거점학교, 통일멘토링 사업, 이중언어 지원학교, 교육혁신지구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상당한 교육 지원금을 확보하였다. 2016년 자료에 따르면 통일초등학교는 교육청 공모사업 신청, 구청 및 경찰서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교생에게 무료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당시 학생 307명 전원은 최대 14가지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각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약 400%로, 한 사람당 평균 4개의 강좌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수업은 사실상 학교에서 학원을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학교라는 시설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수요에 따

라 강의 프로그램이 결정되고 소비자(학부모와 학생)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통일초의 경우에는 교육서비스 수요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무료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에게 방과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바우처가 제공되는 경우는 있지만, 전교생에게 무료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한다는 것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유독 통일초등학교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 계층이 이 학교에 많이 분포해 있어서가 아니다. 폐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열악했던 주변 인식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일초등학교가 적극적으로 민·관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낸 노력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초등학교는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일종의 ‘역지대’로 작동하고 있다. 교육자본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거주지역을 둘러싼 배제의 작동이 통일초등학교의 여러 시도를 통해 잠시나마 유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특성상 학교라는 공간은 계층의 재생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초등학교는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통일초등학교의 다양한 시도가 몇몇의 주체적 행위자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탈북민 학부모와 남한 학부모들은 ○○○ 교장선생님과 △△△ 교감선생님이 통일초등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낸 인물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였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이 학교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각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통일초등학교는 상당수의 학생이 주변의 초등학교로 전출을 가면서 학교의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일초등학교에 부임한 ○○○ 교장선생님과 △△△ 교감선생님은 학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중앙정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학교의 화장실, 교실이 최신식의 시설을 갖추게 된 것도 두 선생님의 부임 이후의 일이다. 특히 ○○○축구교실의 지원으로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마련하고 통일경찰서, 통일구 체육회 등 지역사회의 후원을 얻어 탈북민을 비롯한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은 통일초등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학교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고, 이게 학교냐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원들끼리 단합이 못 돼서 끼리끼리 그러고, 그때는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빗자루질 해도 다 그냥 보면서 지나쳤지, 누구 하나 나와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원들이 바뀌면서 흐름이 좋아지고, 교실, 운동장, 화장실, 돌봄교실 이렇게 다 짝 꾸리면서, 여기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여러 지원도 생기고. <사례 18>.

교육개혁정책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교사들의 행위주체성의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교장선생님과 몇몇 교사들은 이 지역의 특성상 많은 아이들(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등 학교에서 저녁때까지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교생에게 무상으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는 데 성공하였다. 당시 ○○○ 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학교는 여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매우 드물었는데 전교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위한 공교육의 질 향

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⁸³⁾ 덧붙여 탈북민 자녀의 상당수가 중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아 한국어가 서툴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중 언어교실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⁸⁴⁾ 이러한 장점은 통일초를 기피하는 지역주민의 인식을 바꾸고 타학교로의 전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통일초등학교는 교육부 프로그램 중 마을결합형 모델학교 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사업은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마을공동체와 함께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학교가 마을공동체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실 F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통일초등학교는 그 위치의 특성상 마을과 함께 결합하여 발전하는 것이 필요했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말까지 실시된 통일초의 마을결합형 모델학교 사업은 마을주민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마을과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교육적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돌봄교실, 평생교육, 방과후학교 등을 실행하였다. 특히 F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인문학 교실, 어르신 한글공부방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하였다. 마을공동체 구성원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학교가 마을의 중심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요일 휴업일에 갈 곳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교육부의 마을결합형 모델학교 프로그램이라는 제한적인 틀에서

83) 『연합뉴스』 2016년 4월 26일자 기사를 인용하였으나 기사 제목에 학교명이 노출되어 있어 부득이 기사원문을 인용하지 않기로 한다.

84) 2016년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통일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이중 언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루어진 이러한 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긴 어렵지만 통일초등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운영결과 보고서 등에서 언급된 시도는 학부모와 전직 통일초등학교의 선생님 기억 속에 분명하게 남아 있다.

원래 이곳 자체가 그런 곳이니까. 저소득층이고, 다 나이가 많기도 하시고, 또 한글 모르는 노인이 너무 많으니까. 교장선생님이 어른들 한글 배우주는 수업을 직접 운영하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한 분 한 분 공부시키고, 숙제시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운영 및 내부도 구경시키고,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어울려서 그렇게 다 같이 지내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통일구의 중심, 화목한 학교, 화목한 ○○(학교명)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사례 18>

3년 전 교장, 교감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학생을 가꿨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어요. 혁신초 되면서 시설이 매우 좋아져서 일부러 이사오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사례 13>

학교 자체가 혁신학교라 그런지 방과후 프로그램도 좋고 돌봄교실도 잘 되어 있어요. 첫째가 입학할 당시의 교장선생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잘 운영해주셔서 문제없이 다녔어요. <사례 11>

통일초등학교 주변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행하고, 반대로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이 활용된 것이다. 이는 ‘마을결합형 ○○돌봄센터’가 만들어지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새로운 교육돌

봄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마을결합형 사업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구청), 경찰청, 지역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일초등학교가 지역통합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통일초등학교의 이러한 시도는 주변의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통일초등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수업과 잘 정비된 화장실 및 운동장, 돌봄교실 서비스의 확충 등은 더 많은 학부모들이 통일초등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통일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몇몇 학부모들은 통일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해 이곳을 선택했다고 말할 정도이다.

애들이 막 전출가고 그랬을 때도, 교장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갈 테면 가라. 우리가 우리 식대로 열심히 하면 그때 더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할 거다. 그랬더니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나니까 통일초등학교 오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점차 늘기도 했어요. <사례 18>

‘역지대’로서 통일초등학교의 실험적인 시도는 안타깝게도 한 유명인의 방문으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당시 언론에서 유명한 방문의 배경이 이 학교에 탈북민이 많기 때문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자 통일초 학부모들은 적극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통일초등학교가 탈북학생이 많은 학교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이 일로 학부모들은 학교 행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탈북민이 다니는 학교라는 이미지를 지워내기 위해 더 많은 요구를 쏟아냈다.

○○○ 교장선생님이 임기를 마치고 학교를 떠난 뒤 통일초는 예전만큼 남한주민과 탈북민 사이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유명인의 방문이 의도치 않게 통일초를 탈북민 학교라고 알려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으면서 이 학교는 더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도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행여나 기존의 그러한 이미지가 굳어버릴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⁸⁵⁾ 교육자본을 위해 더 높은 거주 비용을 내며 이주해온 이들에게는 학교에 그러한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이 우려스럽고, 학교 입장에서 이러한 우려를 외면하기 힘들 것이다.

통일초등학교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전적으로 낙관하기 쉽지 않은 것은, 통일초등학교의 그러한 시도가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일부 선진적인 교사 몇 명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는 점이다.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통일초에서는 탈북민 학부모와 남한 학부모가 잠시나마 긴장의 끈을 내려놓고 서로를 조심스레 탐색하고 알아가는 장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교육자본을 둘러싼 이 지역의 경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통일초가 이러한 시도를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로 작동한다. 제도가 아닌 개인의 노력으로 이뤄진 변화는, 이러한 외부적 영향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2. 통일전담교육사의 역할

정부는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12년부터 통일전담교육사를 탈북 청소년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⁸⁶⁾ 통일전담교육사는 북한에서 교원으로

85) <사례 16> 인터뷰.

86) 2018년 전국 22개 학교에서 22명의 통일전담교육사가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탈북청소년 545명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상담 또는 기초학습 교습 등을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북학생과 탈북학부모의 남한에서의 학교생활을 가장 긴밀하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학교 안에 탈북민 자녀의 삶의 맥락을 아는 교사가 있다는 것은 탈북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혹시 탈북민 부모들이 한국에서 학부모로서 취해야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통일전담교육사 선생님이 중간에 조율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남한에서는) 엄마가 학교선생님하고 밀접한 연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알고... 나는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도 하고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전화해요.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학교에도 찾아가 보고, 찾아가서 우리 아이에 대해 물어보고, 상담선생님(통일전담교육사)이 거기 계시니까 매일 보실 거 아니에요.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일일이 저는 선생님하고 연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례 10>

북한의 소학교는 1학년 때 편성된 학급과 담임교사가 졸업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며 학생의 진급과 졸업에 대한 결정을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담당한다.⁸⁷⁾ 북한의 교원은 학생들이 하나하나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사람이다.⁸⁸⁾ 자녀의 꿈과 재능 그리고 능력에 맞춰서 학업을 성취하는 교육의 전면에, 교사가 아닌 한국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부모가 나서야 하는 것이 탈북민에게는 낯설게 느껴진다. 이때 북한에서 교원이었던 통일전담교육사는 남한의 교육문화와 북한의 교육문화가 상충하는 지점에서 완충의 역

지원하였다. 통일부, 『2019 통일백서』, p. 234.

87)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5), p. 102.

88) 북한의 깨우쳐주는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는 엄현숙의 글 참조, 엄현숙, “북한의 교수방법 연구: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의 형성과 발전,”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할을 한다.

또한 통일전담교육사는 탈북민 학부모와 자녀, 그리고 담임교사를 연결하는 일종의 통로로 작용한다. 가정통신문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주변 학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싶을 때 탈북민 학부모는 담임교사보다는 통일전담교육사에게 상의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 또한 탈북민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때도 통일전담교육사는 중간에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부모 상담기간에 담임선생님이 탈북민 엄마에게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기 아이가 탈북민 아이라고 괘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제(통일전담교육사)가 잘 설득을 해요. 담임선생님의 말은 믿지 않고 내 말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례 17>

탈북민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해 통일전담교육사와 왕래하지만, 자녀교육과 무관하게 본인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 토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통일전담교육사는 북한 출신이면서 한국 사정에 밝은, 성공한 탈북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은 탈북민 부모에게 큰 의지가 된다.

탈북민 엄마들이 아이 상담도 하지만 한참 올면서 자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사례 16>

통일전담교육사와 그가 상주하는 상담실은 탈북민 학생의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 이곳은 주로 탈북민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탈북민 자녀를 가시화시키는 효과를 낳

는다. 통일전담교육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탈북민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것이므로, 통일전담교육사 역시 본인의 업무를 “탈북민 아이들을 거두는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⁸⁹⁾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학교 내에서 탈북민 아이와 남한 아이를 구분하는 경계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전직 통일초 통일전담교육사로 일했던 <사례 18>은 방과후 인라인스케이트 수업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탈북민 학생들에게는 예산을 활용하여 인라인스케이트를 모두 구입해주었지만 탈북민이 아닌 두 명의 학생은 직접 인라인스케이트를 구입하게 했다. 이러한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통일전담교육사의 역할이 학교 안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드는 의도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3. 통일초등학교 내 탈북민 학생의 경험: 방과후 수업의 풍경

통일초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주변 학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학생들 간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각 학년 별로 3개 학급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몇 년이 지나면 전교생을 다 알 정도로 친해진다. 탈북학생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 모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전이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저학년일수록 탈북 배경이 있다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과후 수업과 같은 학교 교과과정 수업 이후의 시간에서

89) <사례 18> 인터뷰.

탈북학생과 남한학생은 서로의 공간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교육의 욕구가 높은 이들은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사설 학원에서 선행 학습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통일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가장 인기 있는 방과후 수업은 원어민 영어, 컴퓨터, 체육 같은 것은 배드민턴, 축구 등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는 주변에 학원가가 별로 없는 지역이었는데, 그 경우 학부모들이 방과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하지만 지금 있는 학교는 중산층 지역에 위치하고, 주변에 학원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학교 마치면 여러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사례 22>

이렇듯 학교에 남아서 방과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학원에 가는 학생들 사이에는 학부모의 교육관 차이와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다시금 아이들 사이의 거리감으로 이어진다. 학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학원을 안 보내면 애들 친구가 없다”는 표현은 결국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끼리의 사회가 학교 수업이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저학년의 경우에는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도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과 과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고학년의 경우에는 계층에 따른 방과후 시간 활용의 차이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⁹⁰⁾

그렇다면 방과후 수업의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개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거쳐 계획·운영된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 구성되는 방과후 수업은 교과 관련 수업뿐만 아니라 예체능 관련 수

90) <사례 17> 인터뷰.

업도 다수 진행된다. 통일초의 경우 탈북민 학생들은 통일전담교육사의 지도 아래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데, 탈북민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 수업이 구성되기도 한다. 이들을 위한 수업은 주로 정서함양에 역점을 둔 것들이 많다. 탈북민 학생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 독서치료나 스포츠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는 탈북민 학생들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탈북민 학생들의 교육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 통일동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교과 중심의 사교육 경쟁이 시작되지만, 탈북민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수업과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탈북민 학생에게 특화된 방과후 수업은 이들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들의 학습 능력 배양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탈북민 학생들은 처음에는 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보면 흥미를 잃고 학교를 결석하거나 동네를 배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집에서의 북한 문화와 학교에서의 남한 문화가 충돌하면서 탈북민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 학부모는 “먹고 사는 것이 바빠” 아이들에게 크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⁹¹⁾ 게다가 남한에서는 북한에서와 달리 교사가 학생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교육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댈 곳은 많지 않다. 탈북민 학생들의 이러한 상황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 스스로가 발전가능성을 포기

91) <사례 18> 인터뷰.

하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치료 방과후 수업을 참관하였을 때 일부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우려가 포착되기도 했다. 독서치료사는 두 명이 한 조를 이루어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여러 권의 동화책을 펼쳐놓고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이들의 대부분은 4~5학년의 고학년 학생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제공된 동화책은 글씨보다 그림이 주를 이루는 유아용 동화책이었다. 제3국 출생 탈북민 학생이 많아 남한 학생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경우도 있었다.

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도 산만한 학생들은 발견되게 마련이다. 독서치료사 역시 다른 학교에서의 수업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찰이 탈북민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남한 학생들보다 교육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탈북민 학생들에게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탈북민 학생들에게 자기발전의 가능성이 더 쉽게 차단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학교 밖 탈북민 학생의 교육환경

통일초에 다니는 탈북민 자녀는 크게 △북한 출생 △제3국 출생(주로 중국) △남한 출생으로 구분된다. 이 중 북한 출생을 제외한 탈북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남한 출생 탈북민 학생의 경우, 탈북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한 뒤 출산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는 일이 많다.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세심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지원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탈북민 자녀는 부모의 출신지역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한데 △부모가 모두 탈북민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중국인인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주로 아버지)이 한국인(남한 선주민)인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 유형별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부모가 모두 탈북민인 경우와 부모 중 한 쪽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편인 반면, 아버지가 중국인인 경우에는 갑작스런 생활환경 변화와 언어장벽 등으로 유발된 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통일초등학교의 탈북민 자녀 가운데 상당수는 기숙형 시설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⁹²⁾ 탈북민 상당수가 아이들의 보육과 경제생활의 병행을 어려워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다. 한국 교육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는 탈북민들은 기숙형 시설에서 아이들이 지내는 것이 부모가 직접 기르는 것

92) 정규 학교를 제외한 탈북민 교육시설은 크게 대안교육시설과 방과후 공부방으로 나뉜다. 대안교육시설은 정규학교 과정을 다닐 수 없거나 중도 이탈한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대부분 전일제로 운영되며 학력 인정 여부에 따라 인가와 비인가로 나뉜다. 방과후 공부방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과 병행되는 보충학습시설로 기숙 시설 여부로 유형이 세분화된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숙형 시설’은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공부방을 의미하며, 통일초의 적지 않은 탈북민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기숙형 방과후 시설을 이용한다. “늘어나는 탈북민, 시설 교원 확충하는 지원 필요해,” 『고대신문』, 2018.3.19., <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4829> (검색일: 2019.10.10.).

보다 더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 한국어가 서투른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숙형 시설에서 한글 교육을 맡아주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부모와는 주말이나 방학 때만 만나고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탈북민 학생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갖지 못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기숙형 시설의 상당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북한식’ 교육방식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다.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탈북민들은 한국의 교육 방식이 규율과 규범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북한식 교육방식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한국식 방식을, 기숙형 시설에서는 북한식 방식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혼란을 겪을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일부 기숙형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북민 학생들이 이곳에서 받게 되는 교육과 보육의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⁹³⁾

한편 통일초의 탈북민 자녀 학생들은 수업을 마친 후 사설 지역아동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 ○○지역아동센터’는 탈북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해주고 늦게까지 일을 하는 학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식사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이 센터는 탈북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듣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곳으로 바로 와서 센터가 제공하는 수업을 듣는 것이 교육 지도에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⁹⁴⁾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걱정의 시선을

93) “새터민 기숙형 대안학교, 학생들 가혹행위 논란,” 『오마이뉴스』, 2016.5.5., <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V_CD=A0002206859> (검색일: 2019.10.10.); “탈북민 학생 대상 대안학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먹여,” 『연합뉴스』, 2016.6.27., <yona.co.kr/view/AKR20160627173700004?input=1195m> (검색일: 2019.10.10.).

보내기도 하였다.⁹⁵⁾

통일초등학교가 지금까지 시도해 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육 시설 개선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탈북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예컨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수업을 개설하고 통일전담교육사가 정기적으로 지역의 사설 아동기관이나 기숙형 시설을 방문하여 교육의 질을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탈북민 학부모에게 더 많은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에 놓인 탈북학생들의 보육과 교육을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모두 책임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탈북학생에 대한 통일초등학교의 다양한 유·무형의 지원이 다른 일반 학부모에게는 ‘통일초는 탈북민 학교’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5. 소결

통일초등학교는 남북한 출신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공간이자, 중산층과 임대주택 거주민으로 대표되는 상반된 계급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중산층과 임대주택 거주민은 일상에서는 별로 만날 일이 없지만, 통일초등학교에서 ‘자녀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불가피하게 교류를 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상이한 경제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위치를 점유한 두 집단이 교육

94) <사례 16> 인터뷰.

95) <사례 16>, <사례 18> 인터뷰.

이라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경쟁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교류하고 배제하는지를 공간의 정치학과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의 작동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일초등학교는 교육자본을 쫓아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중산층의 교육 요구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탈북민과 임대주택 거주민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일초등학교는 전혀 다른 문화적 코드를 가진 두 집단이 만나는 일종의 역지대(liminal space)를 형성하고 있으며, 두 집단의 계층적 차이가 충돌하면서도 한편으론 경제적 자본보다 교육적 가치가 우선되기도 한다.

사실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철저하게 공간 구획이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두 집단은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해왔다. 임대주택은 진입로, 육교 등 여러 장치와 구조물을 통해 분리되어 있었고, 두 집단의 상호 접촉이나 교류는 제한적이었으며 그만큼 서로에 대한 편견 또한 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거주지에 따라 배치되는 초등학교에서 길 하나를 두고 분리되어 있는 두 계급이 비로소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가장 예민한 사안 중 하나인 교육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교류해보지 못한 두 집단이 만나 새로운 관계의 동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역지대로서 통일초등학교의 적극적인 역할은 몇몇 교육 행정가와 교사들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탈북민 자녀와 임대주택 거주 아이들을 피하려는 중산층 학생들의 진출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통일초의 몇몇 교육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리고 결국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통일초등학교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특별한’ 초등학교로 탈바꿈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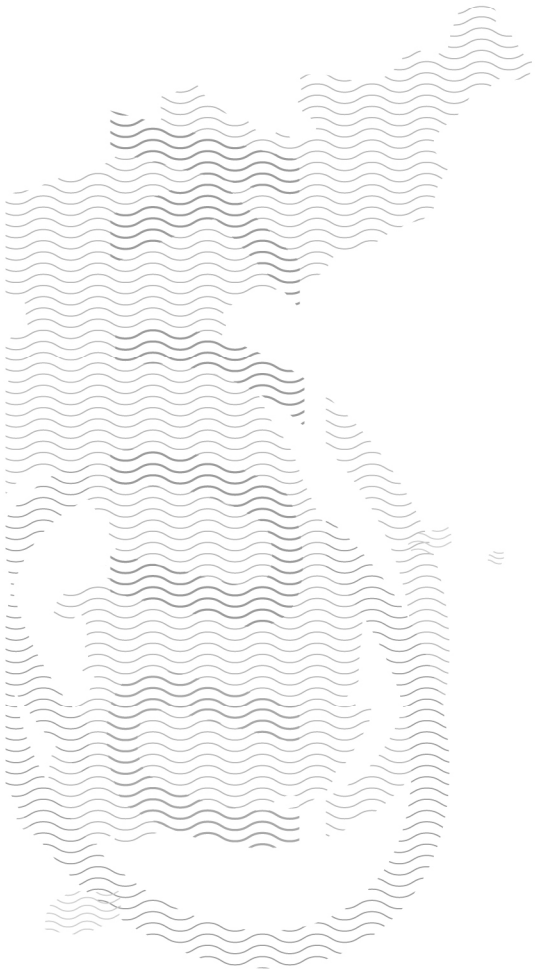
예컨대 전교생 무료 방과후 수업 제공과 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탈북민 학부모와 남한 학부모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학교 내 학생들이 편견 없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통일초등학교의 이러한 노력은 두 집단이 학교라는 공간에서나마 잠시 서로에 대한 불신을 멈추고 이해하며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자본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 지역의 특성상 통일초등학교의 노력은 한계 또한 노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경계가 방과후 수업을 둘러싸고 작동하고 있으며, 저학년의 수준에서는 가시화되지 않던 문화적 차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강화되는 현상도 확인된다. 탈북민 자녀와 일반 학생들을 구별짓는 방과후 수업은 탈북민 자녀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그들을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길로 유도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교과목과 관련이 없는 방과후 수업에 탈북민 자녀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학습 경쟁에 뛰어드는 중산층 학생들은 점차 탈북민 학생과는 다른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일초등학교가 시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계급과 출신 성분에 따라 철폐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이 지역의 역학을 잠시 유보하여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통일초등학교의 노력이 몇몇 교사들의 열의에 머무른 채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역지대로서의 통일초의 역할이 언제든 외부의 충격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와 교육 당국의 제도화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되는 지점이다.

VI. 결론

김수경 (통일연구원)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열을 대표하는 학군 중 하나인 통일동에서 남한 학부모와 탈북민 학부모, 그리고 이들이 공존하는 통일초등학교가 만들어 내는 관계 동학을 살펴보았다. 사례 연구는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는 교육열, 부동산으로 구분되는 계층 인식을 탈북민이 어떻게 겪어내고 그 속에서 통합과 교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지 탐색하는 데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발견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살펴보면, 통일초에 자녀를 보내는 탈북민 학부모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학령기를 보낸 탓에 공교육은 물론 가정으로부터도 학업에 대한 관심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과하다고 느끼며, 특히 교육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었던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현실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학부모들은 남한 학부모를 ‘관찰’하며 남한의 교육문화를 배워가려 노력하는데, 남한 학부모와 적극적인 교류를 맺기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출신임이 드러날 경우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자녀의 큰 성공보다는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희구하였으며 본인 역시 한국사회에서 계층 상승을 꿈꾸지 않았다. 이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하기보다는 꿈을 갖지 않음으로써 좌절 또한 없는 삶이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들에겐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억압이 개인의 힘으로 부술 수 없는 공고한 것으로 느껴지며, 이는 탈북민에게 무력감을 주기도 한다.

다음으로 남한주민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 지역의 남한 학부모들

은 대부분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학부모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자녀관리’의 문화를 형성하며, 여기에서 탈북민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남한 학부모들은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탈북민의 모습을 보며 “자녀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고, 탈북민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친하게 지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남한 주민이 탈북민을 일부러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끝나고 ‘사교육의 시간’이 찾아오면 남한 아이들과 탈북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남한 아이들은 학원으로, 탈북민 아이들은 학교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교실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한편 탈북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피 현상은 부동산 가격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나는데, 통일초를 배정받는 아파트는 인근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통일초 배정 아파트 주민들은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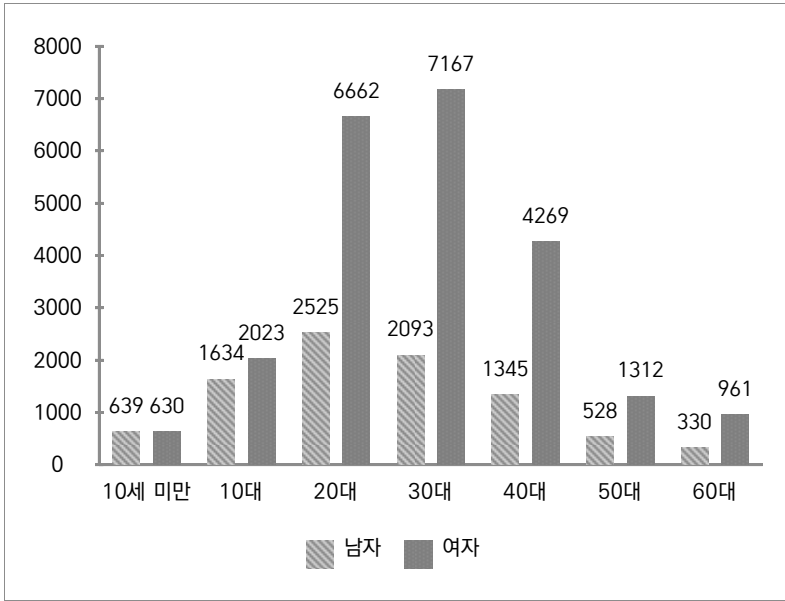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남한주민과 탈북민이 공존하는 통일초등학교 내에서의 관계 동학을 살펴보면, 통일초등학교는 사회적 계층과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두 집단이 자녀교육을 매개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제공한다. 그만큼 갈등의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통일초등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탈북민 학부모들을 교육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또한 혁신초 전환 이후 대대적인 시설개비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남한 학부모로부터도 큰 만족을 이끌어냈다. 통일초의 이러한 노력은 상반된 두 집단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잠시나마 서로에 대한 불신을 멈추고 이해하며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은, 통일초가 탈북민

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자칫 탈북민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초는 탈북민이 다니는 학교’라는 낙인 아닌 낙인 때문에 탈북민, 남한주민 할 것 없이 모두가 곤욕을 치르는 상황에서 탈북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은 선불리 추진할 수 없는 예민한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상의 발견을 통해 한 가지 얻게 된 중요한 결론은, 탈북민 통합에 있어 학교와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2018년에 입국한 탈북민의 85%는 여성이고, 전체 탈북민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72%나 된다. 탈북민의 입국 당시 나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30대의 비율이 60%나 된다. 40대까지 합치면 무려 78%이다 (<그림 Ⅶ-1> 참조). 이 나이 여성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한국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본인도 한국사회 적응이 완전하지 않은데 체제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낯선 환경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현실에 놓이는 것이다. 결국 탈북민 다수는 ‘학부모’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남한사회 적응을 해나가게 된다.

〈그림 VI-1〉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및 연령 분포

(단위: 명)



출처: 통일부.

주: 2018년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이며, 연령은 입국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자녀양육의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여성정책이 육아 문제와 분리될 수 없듯이, 탈북민 통합 정책 또한 자녀교육 및 육아 문제에서 분리될 수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탈북민 통합에 있어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탈북민의 다수는 학부모로서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남한사회를 경험하며, 이 속에서 발생하는 분리와 배제에 노출된다. 따라서 학교가 탈북민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거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초의 경우 폐교 위기에 처해졌으나 일부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탈북민과 남한주민을 동시에 포용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교사가 교체

되면 언제든지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노력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학교가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민의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돕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탈북민들은 한국사회의 편견이 자녀에게 전이되는 것이 두려워 남한주민과의 직접적 교류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탈북민에 대한 호기심의 시선과 근거 없는 편견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인식 개선은 세기에 걸친 노력이 필요할 만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일단은 탈북민이 두려워하는 편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탈북민들은 ‘당장 지금’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동안 여러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한국사회의 시선이 바뀌고 남한주민과 탈북민 사이의 완전한 통합이 이뤄지길 기다리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다.

이를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남한주민과의 1:1 개별 멘토링을 주선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북민은 남한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정보 습득에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정보가 부족한 탈북민끼리의 만남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통일동에 오래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대학에 보낸 50~60대 남한주민을 개인 멘토로 매칭하여 탈북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들은 교육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탈북민의 어려움 중 하나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질문들을 일일이 정부 기관에 물어볼 수 없는 데서 오는 답답함이었다. 1:1 멘토링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남한주민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민의 가정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탈북민이 겪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부모 중 한국의 교육체계를 겪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가정과 비교되는 지점인데,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 시어머니, 남편의 친척 등 가족 중 누군가는 한국의 교육체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다. 그러나 탈북민은 남편이 부재하거나, 탈북민이거나, 중국인인 경우가 많아 자녀교육에 현실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 탈북민이 낙인이나 편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탈북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준만. 『바벨탑 공화국: 욕망이 들끓는 한국 사회의 민낯』. 서울: 인물과사상, 2019.
- 교육부. 『2018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및 통계』. 세종: 교육부, 2018.
- 김근용 · 김혜승 · 박천규 · 이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토연구원, 2015.
- 김수암 · 김화순 · 민태은 · 박주화.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5.
- 김현철 · 이철원 · 오현석 · 오범호. 『방과후학교 및 EBS 수능방송의 정책 효과 분석』.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서울: 동아시아, 2018.
-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시군구별 실태보고서: 10대 주요 거주지역편』.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7.
- 박승재 외. 『방과후학교 참여율 제고방안 연구보고서(TR 2017-8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7.
- 박철수. 『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서울: 마티, 2013.
-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서울: 한울, 2003.
- 신효숙 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표 · 지수 모형 및 측정도구 개발』.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6.
- 오선정.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세종: 한

- 국노동연구원, 2017.
-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장춘익 옮김. 『의사소통행위이론 1·2』. 서울: 나남출판사, 2006.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세명, 2001.
- 윤인진.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파주: 집문당, 2009.
-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서울: 이숲, 2009.
- 정기선 · 오정은 · 김환학 · 최서리 · 신예진.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연구』. 서울: 행정안전부, 2012.
- 조정아 · 임순희 · 정진경.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6.
- 클리퍼드 기어즈 지음.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글방, 2009.
-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9.
- 폴 윌리스 지음. 김찬호 · 김영훈 옮김. 『학교와 계급 재생산: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 서울: 이매진, 2005.
- 피에르 부르디외 · 장 클로드 파세롱 지음. 이상호 옮김. 『재생산: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 서울: 동문선, 2000.
- 한승미 · 김은미 · 조혜림 · 이효정.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 행정안전부, 2010.
- 홍영란 · 김태준 · 조영하 · 박희봉 · 양정호.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 Castells, Manuel. Alan Sheridan Trans. *The Urban Question*. London: Edward Arnold, 1977.
- Dale, Karen and Gibson Burrell. *The Spaces of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Space: Power, Identity and*

Materiality at Work, London: Palgrave, 2003.

Turner, Victor W. *Dramas,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It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2. 논문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 2010.

곽현근.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동네효과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4호, 2008.

김경근 · 황여정. “중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9권 2호, 2009.

김경민 · 이양원. “사교육 시장 및 교육 성과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04년 아파트가격 상승기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55권, 2007.

김경민 · 이의준 · 박대권. “초·중·고등학교 수요가 서울시 구별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거주 이주시기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65권, 2010.

김미숙 · 상종열. “중산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학부모들의 자녀교육문화: 분당구 사례.” 『교육사회학연구』. 제25권 제3호, 2015.

김성홍. “우리 도시 속 이방공간.” 『문화과학』. 제67호, 2011.

김창근.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 제고 방안: 지역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121호, 2018.

김화순 · 최대석.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2011.

남미자 · 배정현 · 오수경. “교육열, 능력주의 그리고 교육 공정성 담

- 론의 재고: 드라마 <SKY 캐슬>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29권 2호, 2019.
- 박채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유입과 적응 실태 연구: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5권 2호, 2011.
- 박청호 · 김지환 · 구자훈. “혼합단지 내 분양임대 거주자 간 사회적 교류에의 영향요인 차이 분석: 강일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제18권 3호, 2017.
- 서창록.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탐색: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2권 제1호, 2010.
- 설진배 · 송은희.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향: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수요분석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6권 제5호, 2015.
- 송향숙 · 박태원. “교육기능에 따른 도시 공간의 변화.”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제8호, 2012.
- 엄현숙. “북한의 교수방법 연구: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의 형성과 발전.”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 여현철.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40대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18권 제3호, 2015.
- 유시은. “패널모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결정요인.” 『통일연구』. 제16권 제1호, 2012.
- 유시은 · 오경자 · 정안숙 · 전우택.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남한 입국 3년 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연구』. 제16권 제2호, 2012.
- 유현숙 · 광현근.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권 가을호, 2007.
- 윤인진. “북한이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한국학연구』. 제41집,

- 2012.
- _____.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제6권 제1호, 2019.
- 이규리 · 김영훈. “철도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을 활용한 주거시설에 관한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2호, 2017.
- 이수정.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 2014.
- 이수정 · 양계민. “북한 출신 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 출신 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 이재열 · 조병희 · 장덕진 · 유명순 · 우명숙 · 서형준.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제21집 제2호, 2014.
- 이종수. “공동체의 형성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동태효과 (community effect)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0권 제2호, 2018.
- 임재만. “범죄율과 교육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헤도닉 모형과 위계선형모형의 비교연구.” 『주택연구』. 제16권 제33호, 2008.
- 장민수 · 이재철. “북한이탈주민 젊은 세대는 행복한가? 삶의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2호, 2016.
- 장세훈. “주택소유의 관점에 입각한 중산층의 재해석.” 『경제와 사회』. 제74호, 2007.
- 전경구. “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분석: 위계 선형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4권 제3호, 2012.
- 전성우. “통일독일에서의 내적 통일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제39집,

- 2000.
- 전태국. “사회통합을 지향한 한국통일의 개념전략.” 『한국사회학』. 제41집 제6호, 2007.
- 정권 · 최창용. “탈북주민의 가치관, 적응도 및 삶의 만족도.” 『KDI북한경제리뷰』. 2018년 4월호, 2018.
- 정수연. “교육요인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7권 제4호, 2012.
- 정현목. “게이트트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제13권 1호, 2012.
- 조시오 · 안관수. “인본주의에 기초한 평등성과 수월성이 균형잡힌 교육정책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11호, 2013.
- 천현숙. “대도시 아파트 주거단지의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제38집 제4호, 2004.
- 천혜정 · 서여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소비행위의 의미.”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2014
- 허준영.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2012.
- Bourdieu, Pierre.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of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 E. Richardson. New York: Greeword Press, 1986.
- Forrest, Ray and Ade Kearns.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the Neighbourhood.” *Urban Studies*, vol. 38, no. 12, 2001.
- Harvey, David. “The Urban Proces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In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edited by Michael Dear and Allen J. Scott. Oxford: Methunew, 1981.

- Kirk, Kate, Janssen Bal Ellen, and Sarah Renee. “Migrants in Liminal Time and Space: An Exploration of the Experiences of Highly Skilled Indian Bachelors in Amsterdam.”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43, no. 16, 2017.
- Nooussia, Antonia and Michal Lyons. “Inhabiting Spaces of Liminality: Migrants in Omonia, Athen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35, no. 4, 2009.
- Portes, Alejandro.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4, no. 1, 1998.
- Shortt, Harriet. “Liminality. Space and the Importance of ‘transitory dwelling places’ at Work.” *Human Relations*, vol. 68, no. 4, 2015.
- Turner, Victor. W. “Betwixt—and Between: The Liminal Period in *Rites de Passage*.” In *Symposium on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edited by June Helm, Seattle: Proceedings of the Annual Spring Meetings of the American Ethnological Society, 1964.

3. 기타자료

- 『고대신문』.
 『서울신문』.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KB부동산 통계정보 <www.onland.kbstar.com>.

부동산 사이트 <www.land.naver.com>.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서울시 통일구 통일동 ○○부동산 중개업자 인터뷰 (2019.4.14.).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ntegration and Social Cohesion: Key Elements for Reaping the Benefits of Migration.” Global Compact Thematic Paper, 2017.

UN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Copenhagen Declaration on Social Development.” UN Doc. A/CONF.166/9, 1995.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7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 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 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함의(1부)	전병근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함의(2부)	전병근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Study Series〉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인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인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 민 외 20,5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2018-0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인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전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종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민	21,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창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현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	----------------------------------------------------------------------------------------------------------------------------	----------------

-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 · Baek, Sangme
-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 · Park, Juhwa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기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